朝鮮日報
夕刊
二十二日(水)
本紙朝夕刊十二面
發行兼編輯人 方應謨
印刷人 金圭述
株式會社 朝鮮日報社

日本軍備擴張으로 『日米戰爭不可避』

日一對米二比例軍備擴充力說

米國뉴스紙의 論調

【紐育二十一日發同盟】데일리뉴스紙는 從來에 機會잇는때마다 日本의 軍艦一隻에 對하야 米國政府는 二隻의 軍艦을 建造하라고 主張해왓는데 十九日紙上에서 日米兩國戰爭은 避키難하다는 語調로 永野全權은 海軍會議를 脫退하자 即時 建艦競爭을 誘致하지는 안는다고 述하고잇스나 高橋聯合艦隊司令長官은 假使 十對一의 比率로서도 日本海軍은 英米兩國의 總艦隊에 지지안는다고 豪語하고잇다 如斯한 一言을 보더라도 英、米兩國軍과 決戰을 하고 시퍼하는것은 掩蔽키 難하다 日本人의 大多數는 同樣의 意見을 가지고잇다 日米兩國間의 戰爭은 大略、不可避라는 豫言을 내린다 米國人은 蘇聯邦이 米國과 聯盟하야 또는 獨力으로 日本軍을 打倒해줄것이라고 생각하는이도잇다 그러나 右期待를 實現함에는 蘇聯邦軍이 帝政時代의 軍隊보담 强하다는 證明이 必要하다 日本人은 東洋人中에서도 가장 東洋的이 아닌 國民으로 米國으로서는 日米兩國間의 戰爭을 될수잇는대로 느치고 또 戰爭이 起한 境遇에 勝利를 獲得함에는 唯一의 政策이 잇슬뿐이다 즉 日本海軍에 對하야 倍勢한 海軍을 維持하고 日本政府가 一隻의軍艦 一飛行機 一隻의 潛水艦을 建艦하면 米國政府는 各二隻의 軍艦 飛行機 潛水艦을 建造할것이다

米紙一齊히 廣田外相演說揭載

【紐育二十一日發同盟】紐育朝刊各紙는 二十一日 一齊히 廣田外相의 議會外交方針演說을 重視하고 各共 東京電報를 揭載하엿는데 特히 뉴욕타임스紙와 如한것은 全文을 發表하는등의 熱이다 各紙는 議會解散을 傳하는 東京電報를 報道햇는데 政局의 豫測에 關해서는 一切批評을 避하엿다 그리고 華盛頓官邊에서도 廣田外相演說에 對하야 非常한 關心을 示하고 廣田外相演說은 日本今後의 政策을 率直히 開陳한것으로 愼重히 考察할만한 重大聲明이라고 述하엿다

衆院解散歷史

【東京電話通】前回 衆議院解散은 昭和七年 一月二十一日 犬養內閣에 依하야 行하얏슴으로 今回는 十五回째에 該當한다 第一回 以來의 解散 歷史는 左와如하다

一、明治廿四年 十二月廿五日 松方內閣(軍艦費其他否決)
二、同廿六年 十二月三十日 伊藤內閣(失政上奏案)
三、同二十七年 六月二日 伊藤內閣(官紀振肅)
四、同三十年 十二月二十五日 大隈內閣(內閣不信任案)
五、同三十一年 六月十日 伊藤內閣(增稅案否決)
六、同三十五年 十二月二十八日 桂內閣(海軍擴張費削減否決)
七、同三十六年 十二月十一日 桂內閣(對露外交)
八、大正三年 十二月二十五日 大隈內閣(增師案否決)
九、同六年 一月二十五日 寺內內閣(內閣不信任案)
一〇、同九年 二月二十六日 原內閣(普選法案)
一一、同十三年 一月三十一日 淸浦內閣(內閣不信任案)
一二、昭和三年 一月二十一日 田中內閣(內閣不信任案)
一三、同五年 一月二十一日 濱口內閣(與黨少數)
一四、同七年 一月二十一日 犬養內閣(與黨少數)
一五、同十一年 一月二十一日 岡田內閣(內閣不信任案)

二百名內外로 政友、民政比等?

昭和會卅、無產黨十、國同은沒落

警保局의總選擧展望

【東京電話通】岡田內閣擧國一致의 名目上 政策의 圓滑한 遂行을 期키 難하다고 解散을 斷行하고 選擧肅正의 旗幟下에 嚴正公明한 選擧를 執行하려는 普選第四回總選擧의 結果에 關해서는 總選擧後의 政局의 推移에도 關聯하야 자못 興味를가지고 보고잇는데 內務省警保局이 昨秋의 對府縣會議員選擧에 들어난 結果와 全國의 地盤關係、人氣의 消長等에 依하야 綜合的으로 客觀한바에 依하면 大體 政友、民政이 모다 二百名內外、但 政友十名 內外의 差로서 第一黨이될 可能性이 잇고 昭和會 二十五名乃至 三十名 國民同盟 十名 乃至 十五名 無產派十名內外 中立其他十五名內外라는 觀測을 내리고잇다 그대로 嚴正公平한 取締에依한 勢力平衡運動으로 府縣會議員選擧와는 反對로 政友會는第一黨을 占하더라도 現在보다는 三、四十名을 減하고 民政黨은 七、八十名을 增加하야 勢力의 均衡을엇게되고 國同은 潤落되고 無產黨、中立、其他 新興勢力은 增加傾向를 보게될것으로 豫想하고잇다 이로써 總選擧後 政局도 現內閣을 支持하는非政友聯合의 多數로 一日의 安定을 ... 政界는 選擧肅正에 依한 民意의 如實한 反映으로 明朗性을 增加할것으로 期待되다

絶對多數豫期코 民政黨前途樂觀

議席二百三十獲得?

【東京電話同盟】民政黨에서는 特殊事情에잇는 小數選擧區를 除한 以外의 各選擧區에 擁立할 候補者는 이미 決定되엿스므로 選擧公示가잇는대로 逐次 發表하기로 되엿는데 現在 民政黨의 目標는 二百七、八十名의 公認候補의 八割當選者 即 二百二十名 乃至 二百三十名의 獲得에 잇는데 如何한 不利한 事態가 發生하더라도 右數를 低下하는일은 絶對로 업슬수업다고 樂觀하고잇다 그러데 그根據는 今回의 選擧에서 政民兩黨選擧基本數는 約百七、八十名이오 남은百名을 政民兩黨을 爲始하야 國同昭和會其他에서 分割獲得하게될터인데 政友會는 昭和會와 同一地盤에서 싸우기爲하야 基本數以上의 當選者를 엇기는不可能하고 또 昭和會 國同이 모다 現在數를 維持하기는 困難하야 兩者는 各十名을 超過할수는 업슬것이며 또 中立無產黨과아울러 二十名內外의 小數이오 民政黨은 殘存한 五十名 合計二百二十名이므로 三百三十名의 當選者를 내는것은 그리 困難치 안타고 자못樂觀하고잇다

領事館巡查被殺

汕頭日本領事館勤務 角田巡查廿日午後에

【汕頭二十一日發同盟】汕頭日本領事館勤務角田巡查는 二十一日午後零時半 自宅으로부터 出勤하는途中 兇漢에게 拳銃으로狙擊을 當하야 現場에서 絶命하엿다 犯人은 不明이나 抗日테로團의 所爲라고 보이므로 原田汕頭領事는 廣東市政府에 犯人檢擧를 要請하엿다

全滿領事會議

廿九日三十日兩日開催

【新京二十一日發同盟】日本大使館에서는 今月二十九日三十日兩日에 亘하야 全滿領事會議를 開催하기로 決定하엿다 當日은新京 哈爾賓 奉天 間島各總領事를 爲始하야 全滿領事十名計十四名 出席下에 在滿日本人의 諸問題와 治外法權撤廢諸準備에 關하야 討議會를 行할터이다

六相出馬

總選擧應援에

政府의所信貫徹에努力

【東京電話同盟】總選擧는 二月二十日로 決定하야 政府는 드듸어 嚴正公明한 肅正選擧로써 政界革新에 進出하기로되엇스므로 二十一日 解散直後의 閣議席上에서 各閣僚間에 對選擧策을 協議하엿다 그結果 現閣僚가 應援演說에 臨하는것은 法律的으로는 問題업다하드래도 事實上 岡田首相을 爲始하야 陸軍 海軍 內務司法及大藏七省은 當然應援演說에 설수는업스나 남은町田、松田、內田、山崎、望月及兒玉의 六相이 이에 臨하는것은特別한 잘못도 아니오 擧國一致의 名目에 反하는것도 아니라는 見解에 一致되어 各其 比等六相은 向後一個月間 各其 所屬黨派를 通하야 政府의 所信徹底를 爲하야 積極的選擧應援을 開始할것을 議決하여다

英米會談

第一委員會 當分間休會

【倫敦二十一日發同盟】英國皇帝崩御로 二十一日의 海軍會議第一委員會는 延期되엇다 會議는 當分 休會될것으로보인다

四國會議그後 質的制限의最近案提議

【倫敦廿日發電通】二十日午後六時부터同四十五分까지 英外務省에서 英米會談을 開催하고 米國側으로부터 데비스全權 잉거솔大佐 사만中佐 英國側으로부터 몬셀海相 차트필드提督 크레기外務參事官等이 出席하야 英國側으로부터 提議된 質的制限에關한 最近의 案을 審議하고 米國側에 同意를 求하엿다 右質的制限案은 艦型、砲徑의 制限에 關한것으로 二十一日午前十一時부터 開會될 第一委員會에 上程하야 審議를 開始하기로되엇다 英國側의 從來의 會議에 軍縮提案으로 提議한것은建艦通報案에 不過하고 質的制限案의 公示는 二十日의 英米會談으로써 最初의일이므로 新案提議로 注目되고잇다

佛內閣危機直面

社會黨閣僚總辭職?

【巴里廿一日發同盟】佛國內閣의 運命을決定할 重要閣議는 드듸어 廿二日午後三時부터 行하기로되엇는데 閣議에서는 에리오無任所相以下 急進社會黨出身閣僚가 一齊히 辭職決意를 表明하게되더라도 라발內閣은 成立後六個月間으로 드듸어 瓦解의 悲運에 遭遇할밧게 업시되엇다 라발首相은 이結果 即時 르브랑大統領에게 辭表를 提出하고 大統領은 다시 라발氏에게 再組閣을 委囑할것으로 解釋되나 그러나 라발氏는 一旦 이것을 拒否하야 迂餘曲折을 經한後 結局 또 라발氏의 再組閣에 落着될것이라는 見解가 有力하다

人事·集會

▲레오니드·아이산氏(蘇聯領事) 新任人事次來社
▲宋相錫氏(基督敎節制運動會總務) 事務를帶하고入京 信行旅館投宿

八面鋒

◇解散은旣定事實이 實現되얏슬뿐、이제는 各派의 選擧看板을 세우기가바뿔차례。

◇民政黨은 岡田全과 責任政治는 政友會의 看板。

◇擧國一致와 非常時對策은 民政黨의看板。

◇選擧肅正을 機會로 當選率의增加를꾀하는것은 社大黨의灰色看板。

◇當選後면 除去되는것은 政策마저 슬그머니 집어치우는것은 現代의政黨者들。

◇米實收가 第二回豫想보다 늘어서 失望하는때가 잇는世相이나、이派에屬하는 政治家는 몃분이나 되는고。

有權者增加되야 總數一四四八萬

二十日選擧人名簿發表

【東京電話通】二十一日 議會의 解散으로 普選第四回 衆議院議員 總選擧가 執行되게되엇다 今回의 總選擧에 使用될 選擧人名簿는 이미 昨年十一月二十日 確定하야 調查集計中이던비 二十日 드듸어 完了發表되엇다 이에依하면 全國有權者 總數는 一千四百四十七萬九千五百五十三人으로 前回의 昭和七年의 一千三百二十三萬六千九百三十八人에比하야 百二十四萬二千六百五十八人의 增加인것은 人口의 自然增加에依한것 外에 改正選擧法에서 選擧人名簿의 登錄要件에重要改正을 加하엿는데 그要件인 住所制限을 短縮하고 또 年齡計算의 基準을 名簿調製當日로부터 名簿確定當日까지 延期한結果 增加된 模樣인데 結局改正選擧法에 依하면 增加實數는 四十七萬九千五百三十八人이되는셈이다

000146

總選擧費用

第二豫備金에서支出 三百八十餘萬圓

【東京電話通】衆議院議員總選擧에 要할 經費는 議會解散으로 十一年度豫算이 不成立되게되여 即時 支障을 生하게되엿슴으로 政府는 그對策으로 當分間 今年度豫算第二豫備金의 殘額四百萬圓中에서 그經費를 支出할터인데 그金額은 不成立豫算에 計上한 左記金額의 範圍內에서 補充하기爲하야 解散後의閣議에諮할 方針이다 (單位千圓)

一、內務省選擧取締及 選擧公營에 要하는經費 二、三四四
一、司法省選擧檢察費 五、一一
一、遞信事業特別會計에서 그外에 遞信省臨時通信取扱費 一、一四一

루즈벨트大統領의 農事調整法代案

土地不當暴用의國富損傷防止

新法案의立法精神

【華盛頓二十一日發電通】루즈벨트大統領은 二十一日 議會領袖들을 集合하야 農事調整法代案에 關하야 協議한 結果 大審院의 違憲判決은 農調法이 生產統制를 目的으로한 點을 主로한것이므로 今後는 目的을 全혀 別形式의것으로하야 土地의不當暴用은 國富를 損傷하므로 此를 阻止한다는 主旨에 依하야 新立法을 行하기로 意見이一致되엇다 (寫眞은 루大統領)

補償金은如前히 農民에게支拂?

米、歲出委員會報告

【華盛頓二十一日發電通】二十一日 米國下院歲出委員會는 第二次赤字追加支出中에 一九三五年度新價格調整에 伴하는 補償金支拂에 充當할 基金을 包含시킬것을 承認하엿다는 旨를 下院에 報告하엿다 이리하야 政府는 農調法紛糾에도 不拘하고 農民에 對한 支拂은 旣定대로 行할것이 事實上 明白하게되엇다

御踐祚正式可決

英樞密院會議에서

【倫敦廿一日發電通】二十一日急遽 召集된 樞密院會議는 先帝 죠지五世陛下의 崩御에 伴하야 皇儲웰스殿下의 에드와드八世陛下御踐祚를 正式可決하엿다 이로써 新帝御踐祚의 形式的手續은 終了한셈이다

루大統領의 金看板 뉴딜政策의 破綻

(3) 韓普容

◇ AAA(農業調整法)은 一九三三年 五月十二日 公布實施되것으로 그目標가

農產物價 를 引上할뿐아니라 一般農家의 購入品價와의 均衡을 維持하야 同等의 農家購買力을 回復식히려는데 잇다함은 旣述한바와갓다。AAA가 어떠한 動機와 어떠한 理想下에 出現하엿는가함은 同法 第一條에 依하야 보다더 明瞭히 알수잇다。同條에는 다음과가튼 明文이 規定되어잇다。

◇ 農業調整法第一條=『現在深刻한 經濟的非常時(危機)가 來된 原因의 하나는 去益甚蓄한 農產物價格과 다른商品과의 均衡이 維持되지못하는데잇다。이 不均衡이야말로 工業生產物에 對한 農民의 購買力을 破壞할뿐아니라 諸商品의 正當한 取引을 破壞하엿고 全國的

信用機關 의基礎가되는 農業生產을 顯著히 阻害하엿다…… 그러므로 이 緊急不可避의 情勢에 對處하기 爲하야 本法을 制定한다(下略)』하엿는데 이農業調整法의 骨子는 米國의 主要農產物인 小麥、棉花、玉蜀黍、豚、其他家畜、羊、煙草、米、牛乳及 同製造品 數種를 爲하야 農務長官에게 獨裁官的 大權限을 賦與하엿다。그內容을 要約하면

一、重要農產物의 植付減段
二、植付減段에 對한 補助金交付

三、이것이 效果가 업는때에는 一定한 價格以下의 農產物賣買禁止 又는 一定한 特定價格으로의 買上
四、이것조차 效果가 薄弱한때에는 最後로

平價切下 를 斷行(本法案이 提出될때에는 米國은 아즉 平價切下가 斷行되지안헛다)하야 價格을 維持할것。等等으로 볼수잇다。

◇ 以上에 指摘한바와가티 AAA가 農產物價의 引上으로 農家의 購買力을 增進하야 農村救濟의 實을 擧하려는 그具體的 實行方法은 『重要農產의 植付減段』에 잇섯다。從來 후─버大統領 時代에도 米國에는 小麥棉花等의 植付減段政策이 잇섯다。그러나 그것은 農民의 自發的減段을 기다렷스나마치 그것이 如意하게 되지못하엿다。더욱히 當時의 植付減段은 該農民 一個人이 損害를 負擔하고야 비로소 實行될 形便이엿스므로 理論上으로보와 可望이업섯고 事實上으로보와 成功치못하엿다。그러나 AAA에 規定된 植付減段方法은 一旦 政府의 減段計畫에 承認參加하게되면 契約履行의 法的强制力이 잇슬뿐아니라 減段에依하야 犧牲된 損害는 政府에서 이것을 補償하기로 되엿스므로 實際上으로보와 可能할뿐아니라 理論上으로보와 妥當視안흘수업게되엿다。그러면 이

減產計畫 에 參加한 該農民에對한 損害補償額規定은 어찌되엿든가。

補償金額 (單位弗)

種目		一九三四年度
豚	一頭	一五、〇〇
玉蜀黍	一붓쉘	〇、三〇
小麥	一붓쉘	〇、二九
棉	一폰드	〇、〇三
煙草	一에-커	二二、一〇

◇ 이와가튼 方法으로 政府는 積極的으로 生產減退를 獎勵하야 實際로 植付減段에 成功하엿슬뿐아니라 AAA의 理想인 農產物價引上에 成功하엿다。他面에잇서서 政府의 이減產獎勵에 依한 即 補償金으로의 所要經費는 實로 莫大하다。農務局發表에 依하면 一九三四年一一三五年度의

補償金額 이 八億八百萬弗에達하야 이 巨額의 財源은 어대잇스며 그 捻出方法은 어떠한가。AAA가 農產物價引上에 成功한 理由는 그財源(補償金의)을 農村自體에 두지안코 農村以外의 다른方面에 둔까닭이라할것이다。即 AAA는 그財源을 農產物의 加工稅、補償稅、플로어稅等에依한 商工側方面에 두어섯다。다시말하면 重要農產物인 棉花에잇서서는 紡織業者에게、小麥에잇서서는 製粉業者에게 加工稅를 賦課하고 此等課稅에依한 當該品種의 物價騰貴로 代用的競爭物이 생길때에는 그競爭物取扱業者에게 補償稅를 賦課하고 플로어稅는 加工稅賦課以前에 加工業者 其他關係商品取扱者의 倉庫플로어에 잇는商品 即 在庫品의

物價騰貴 에依한 利益取得에對하야 賦課하는것인데 政府는 此等課稅에依하야 每年 約六億弗의 財源을 엇게되엿다。

◇ 重要農產物에 對한 加工稅는 補償金支拂의 財源으로 AAA實施에 不可缺한 課稅인同時에 農產物價引上에 直接的效力을 내게되엿다。反面에잇서서 이加工稅로 因하야 此에關聯한 商工方面의 打擊은 容易히 推測할수잇다。그들에게 課한 加工稅가 消費大衆에게 轉嫁될것은 疑心업다하드래도 이것이 그들의 商上에 直接的으로 떠러지는以上 그들의 苦痛을 認定치안흘수는 업는것이다。그러므로 그들은 이加工稅에 對하야 最初부터 猛烈히 反對하엿고 最近에와서는 加工稅賦課는 州政府의 權限이오 聯邦政府의 課稅는 違憲的越權이라는 NRA의 境遇와가튼 理由를 口實로 加工稅

不拂訴訟 을 提起하야 結局 去六日 大審院判決로 AAA를 破壞하야 버렷다。이리하야 AAA도 結局 NRA와가티 資本家의 威力에 無慘히 死滅되고마럿다。(寫眞은 米國農務長官 월레이스氏)(續)

一月二十一日부터三日間 파라마운트社特作全發聲日本版 ますらを 全八卷 監督 푸랭크·보자-기 主演 쪼-지·바-렛스 全世界를感動하는미리리라의날개는어린이世界에도명히여이슬을울수잇슬것이다
パワリイ 全十一卷 유나이테드·아-티스츠社特作品
(阿修羅街) 監督 리올·윌슈 主演 우오레스·비아리- 쪼-지·라프트 짝키-·쿠-파-
이映畵一篇에나타나는世界的名俳優인비아리-、라프트、쿠-파-等의三巨星의主演은過로우리들에게커다란期待를가게하는것이다
豫告 舊正月一日一月二十四日부터 春香傳 命호다어머니! 七八歲에도戀愛하나
竹添町一ノ 電光3三番 東洋劇場

十七日ヨリ二十三日迄京城鐵道カトリック青年會主催特別大興行 晝夜二回晝十二時半夜六時半始映 パラマウント超大作全發聲日本版 セシル·B·デミル 監督 ロレッタ·ヤング ヘンリー·ウイルコクスン 主演 出場人員五萬人馬匹八千頭使用
十字軍
是れこそ世界歷史上 最初の大戰爭映畵、英國獅子王リチャードの率ひる果敢な三萬餘騎、これを要擊するは强豪サラセン人七萬騎渺茫千里の荒野に興亡一擧に期す壯烈な大激戰!人馬入り亂れて天地を揺すアーカーの戰ひ!!今ぞ見る血どられし歷史の一頁……
◎ベテイの日本訪問 ◎ポパイの整骨料理店 ◎極彩色月へのオネームーン パラマウント特作發聲漫畵
P·C·L特作オールトーキー 山本嘉次郎監督作品、佐佐木邦原作、音樂P·C·L管絃樂
いたづら小僧
伊藤薰、英百合子、高尾光子 藤原釜足、夏目初子 共演
安くて面白い
若草映画劇場 電本五二五四番

一月二十二日부터二日間 大衆料金階上十五錢階下十錢均一 土曜日曜祭祝日은晝夜二回公開 낫一時 밤七時十五分始映
◇阪東妻三郞復歸第一回作品 時代活劇 影法師 全六卷 監督…二川文太郞氏 主演…阪東妻三郞氏
◇파라마운트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大喜劇 幽靈大統領 全九卷 監督…노-마다-록크氏 主演…죠-지엄코-한氏一人二役
구레데르륩벨嬢 지미·듀란드氏助演
파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大悲劇 제니의一生 全十卷 監督…마리온케링구氏 主演…실바시드니嬢 果然!世上視線이모도기이名篇의集中되여잇는참된殉情의눈물겨운
次週=舊正月一日부터 朱玉篇!!
極樂發展俱樂部 =알푸스大將= 여기는西部다함부루날뛰라
桃花洞 電話龍三三番 桃花劇場

一月廿日封切短期四日間 每日三回午前十時半 午後一時半六時廿分
◆廿世紀폭스超特作映畵 쩰스、엘、래스키-作品 白衣行進曲 로레타、영、쫀빨즈主演 白衣의處女看護婦敎習所에울트는靑春의속삭임滿天下女性理諸氏께삼가밧치는珠玉가흔名編!
◆콜럼비아特作映畵 안사찬主演 윌리암네일主演 八點鐘 海洋映畵의白眉!두사나이와한女子의이약이怒濤와싸우는壯烈한맨로또라마!
◆日活特作映畵 池田富保監督 劒雲薩摩歌 決田淸、瀧口新太郞、澤井三郞、深水藤子、山本禮三郞主演
全鮮第一 映畵殿堂 電光 九九 團成社

新學期압두고들리는 街頭의入學難소리
京畿道에만未就學兒童一萬
天眞을울리는이煩惱

사월일일의 보통학교 신입생입학기를압두고 전조선방방곡곡에서는 또다시 입학난의 아우성소리가 되푸리되고잇는데 그중에도 경성을 비롯하야 인천(仁川) 개성(開城)부등큰도회를 만히포용하고잇는 경긔도에는 도회지의 자극에따라 향학렬이그만큼 더비등하야 다른 도에비교하야 학교수는 수자로는만컷마는 입학난은 역시완화되지안코 보통학교입학에도『멘탈테스트』를 하고잇는현상이다

현재경긔도에는 관공사립보통학교가 이백륙십구교 간이학교(簡易學校)가 륙십교 기타초등정도 잡종학교가 사십교가잇서 일년에새로 수용할수잇는능력은 관공사립보통학교 이백륙십구교에 약 이만사천오백명, 간이학교륙십교에 약일천팔백명 초등정도잡종학교사십교에 약천명 모다 이만칠천여명밧게 안되는데 학령(學齡)에 달한아동의 수는 인구총수의 입학생분오리만된다고 추정하여보더라도 약삼만사천여명에달하야 약칠팔천명은 배우고자하여도 들어갈학교가업는터이다 이것은 추상적수자이나 실지는이보다도 더심하야 소화십년도의관공사립보통학교의 응모자수와입학자수만을 비교하여보더라도 응모하엿다가 입학되지못한 아동수는 약일만오천명에달하얏다 얼마나 만흔 학령아동들이 들어갈학교가업서 가두에 방황하고잇스며 얼마나 새로 입학하기에 전전긍긍하며머리를 알코잇는가를 여실히 알수잇다

京城은入學者를配定

신춘의 입학기를 압두고 적은수용력에 만흔지원자가 사태가티 밀려드는 보통학교의 입학난으로 경성부 학무과 에서는 벌서부터 그대책에 부심중인데 금년만해도 약사천팔백명의수용에 학령아동은 칠천삼백여명이나되는데로 그처리는 극히곤난한문제로되여잇다 그런데 종래에는 각보통학교마다 학교를중심으로 구역을정해가지고 입학원서를 밧기로하엿스나 그실은 시내보통학교중에 조타고일홈난학교에는 다른동리에서 다수지원하여왓다 그것은물론 온당치안흔방법이나 지원하려는학교부근동리에 일부러거주계를하여가지고까지 지원하는례가 만혓다 그례로는 정동 덕수보통학교나 교동보통학교기튼곳은 의외에도 지원자가 만허서 사정에 빠지는 아동이 만흔한편에 어떤보통학교에는 지원자가 모집정수에 겨우차는경우가 만헛다 그래서 학교부근동리에 살면서도 부근학교에 입학치못할뿐아니라 사정에빠지는 일까지잇섯다

이번에는 형식으로는 지원자의학교중심의 동리별 구역은 철폐하나 그대신 사정전에 학교동리의 지원자수효를 보아서 만흔곳은 적은곳으로 보내서 사정인원을 평균배정하리라 한다 이방법에 의하여 일부러 다른동리에 거주계를하고 원거리의 학교를 선택하여 원서를 제출하는 폐풍을 방지하려는것이다 그럼으로 일반가정에서는 원측대로 부근학교에 원서를 제출케함이 가하다고한다

떡치는소리에伴奏된 二重歲暮行進曲!

하로압두고 저물어진 음력세모는 례년에틀림업시 거리의발자최를 재촉하고잇다 그러나 점두(店頭)에 살긔가득하게 손님을 끄러당기는 맛이업는 구년말은 엇전지 몃몃특수한 곳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한산하여지는 경향이잇서 이중과세(二重過歲)의 무거운짐도 차층완화되여지는것갓다

◇

장안의 이구석 저구석에 흐터진 세모풍경을 주어모흐면——

▲쌀전과 시탄장사가 세월이난다 그러나 쌀이면 한가마니 시탄이면 한차식 보담도 한되두되, 한단두단 자리손님이 갑작히늘어가고

▲포목상(布木商)은 손이모자라 미처 자로 재지도못할 형편이지만 어린애에줄너는 탓인지 어린애옷감이 제일세월난다

◇

『정월』하면 『떡』을 누구나 아는바이지만 금번에 이르러서는 흐터저잇는적은떡장사가 비교적 한산한반면에 금번부터시작한 화신(和信)백화점 용달계(用達係)의 떡주문은 주문이너무만하 처치할수업서 어제부터는 주문을 사절한일까지 잇다하며

小火四件

화재사건—이십이일 오전한시 십분경에 시외룡제외리(弘濟外里)산 일번지 우혜진(禹惠鎭)의양철집에서 불이나서 집한채를 전소하엿는데 손해는 일백삼십원가량이며 원인은 온돌이너무더운데서 인화된듯하다고한다

◇

이십이일 오전세시경에 시내현저동(峴底洞) 사십오번지의일백륙십팔호 초가집에서 불이낫는데 곳진화되어 손해는이백원밧게 안되엿다한다

◇

이십일일오후 여덟시 십오분경에 시내죽첨정(竹添町)일정목 오십구번지 최모(崔某)의 집에서 불이낫섯는데 곳진화되엿스며 손해도극히 적다고한다

◇

이십일일 오전 아홉시이십오분경에 시내 미근동(渼芹洞)팔십일번지 윤회섭(尹會燮)의집 부엌에서 불이낫스나 곳진화되어 손해도극히 적다고한다

"핸들"의誘惑 出奔한아우를차저 兄이搜索願

이십이일 오전열시경에 시내종로서(鐘路署)보안계에 평원군로이면룡정리(平原郡路伊面龍井里) 장동석(張東錫)(三)이라는 사람이와서 잇든전에 빗갑흐러 장만해둔 돈팔십원을가지고 자동차학교(自動車學校)에 입학한다고 서울로도망하엿는데 도저히 하비를 대일수업는처지로 자긔가꼿뒤쪼차왓는데 어데로간는지 몰으니 차자달라고 수사원을 제출하엿다

新版"집업는아이"히
엄마를차저서—
陸路千里海路千里
가보니넷집은간데업고나
慕親의꿈을품은放浪의少年

외로운철에서 나가지고 천진스럽고 순박하게 자라나든소년! 불행스럽게도 못된동무의꾀임에 빠저 죄를저질르고 법의그믈에걸려갓 옥에드러갓다나오니 옥속에서일년동안이나 그리워하든 홀어머니와 동생은 어데로 헤러져 떠나고말엇고 정거픈 옛집도 비러만 남엇스므로 애끗는 가슴을 부둥켜안고 북으로 남으로 이천여리를일년이상이나 차저 떠도라다니다가 로수가궁해진끄테 할수업시 또 죄를짓고 차듯한 류치장속에서 울고잇는 젊은이가잇다

◇

어느놈의 주인공은 제주도한림면금악리(濟州島翰林面今岳里) 이천이백팔십번지 고석산(高石山)(二〇)으로 지금절도죄로룡산서(龍山署)에붓잡혀 문초를밧고 잇든터인데 이는 재작년 류월에 자기동리에잇는 나쁜동무의꾀임에 빠저서남의물건을훔친죄로 금천(金泉)형무소에서 징역일년반을 치르고 작년구월에 나왓다한다

◇

오랫동안 옥속에서 그리워하든 어머니와 동생을 맛나려는 기쁨에취해서 허둥거리고 넷집의 문을두들겨보앗스나 결국옥에드려간바로뒤에 모다들 어데로 헤러지고 말엇스므로 그때 고소년은 자긔의지나간날저질럿든 죄를뉘우치는한편 어머니와 아우를맛나서 속죄할 마음을 굿게 정한다음 그길로 옥에서 나올때 바든 작업상여금 일원오십오전을 로수삼어가지고 제주도는 물론 목포(木浦) 서울, 개성(開城) 사리원(沙里院) 평양(平壤)등지를 샅샅치뒤저서 공차로혹은동배로 일년반동안이나 애써보앗스나 결국뜻을 못이루고 자긔고향으로 발길을 다시돌리지안홀수 업게되엿든것이다

◇

그러나 가진돈도 한푼업고 누구에게 비럭질도할수업시 이국도에 달하때 그는 할수업시 작년섯달 이십구일 사리원을떠나는 기차에 공으로 올라서 그날밤열시 경성역에 기차가 다엇슬때 어떤일본내지인승객이 『벤또』를 사노라고 차창밧글 내다보는동안 그의외투, 가방, 약속수형등 칠백원어치 금품을 훔치게되엿든것인데 이사실이 룡산서원에게 알린바되여 그가티 다시철창에 드러가게된것이다

◇

그가 비록죄를지긴햇지만 어머니와 동생을 그리워해서 끗내 눈물흔적을 감추지 못하고 애달어 하는데는 보는사람으로하여금 동정의눈물을 자아내게 하엿다

極東蹴球王都를차저 延專軍上海安着
前後二個임擧行豫定

【上海支局 郭世綸 發電】 延禧專門蹴球部 十八名은 部長 林炳赫氏 引率아래 二十一日午後五時 (風浪이 甚하야 豫定보다 二時間 延着) 上海入港의 長崎丸으로 元氣旺盛하게 匯山碼頭에 到着하엿는데 碼頭에는 在滬同胞들의 盛大한 出迎이 잇섯다 一行은 當地 德林호텔에 旅裝을 풀엇다 今二十二日은 本社上海支局 主催의 延專軍 歡迎蹴球戰과 歡迎會가 잇고 來廿五日에는 遠征第一戰으로 華北팀과 對戰키로 되엿스며 二十七日에는 上海, 香港西洋人聯合軍과 決戰케되엿다 그리고 最終戰으로 二月二日에 全上海軍과 對戰케되엿다

日光氷上大會 五百米戰績

【日光電話通】第七回 全日本氷上選手權大會 第一日은 二十二日午前九時부터 日光細尾링크에서 스피ー드競技男子五百米, 五千米, 女子五百米의 三種目을 擧行한바 이날天氣는 자못良好하얏다 定刻에 링크中央에서 開會式을 擧行하얏는데 昨年度選手權保持者 金正淵君이 優勝盃를 返還하고 뒤니어 男子五百米레ー스로부터 開始되엿는바 이날夕刊마감까지의 戰績은 다음과갓다

◇男子五百米 ▲1 三代(滿洲) 四六秒四 ▲2 安達(滿洲) 四七秒二 ▲3 安重熙(明大) 四七秒三 ▲4 金永河(明大) 四七秒五 ▲5 木谷淸(滿洲) 四七秒八 ▲6 李仁源(朝鮮) 四八秒 ▲7 張日弘(明大) ▲8 崔龍振(同) ▲10 許景日(同) ▲13 朱鳳德(同) ▲22 尹世楨(同)

◇女子五百米(出場選手七名) ▲1 渡邊(朝鮮) 五五秒四 ▲2 江島(滿洲) 五五秒四 ▲3 今村(滿洲) 五五秒五 ▲4 村山菊(滿洲) 一分七秒三 ▲5 村山節(滿洲) 一分七秒 ▲6 和田(朝鮮) 一分一〇秒 ▲7 前田(朝鮮) 一分一〇秒五

孫君또一着
鎌倉合宿終了

지난六日부터 鎌倉에서 合宿中이든 올림픽陸上競技選手候補五十名은 十九日午後零時半부터 鎌倉師範學校校庭에서 最後의記錄會를擧行한바 孫基禎은葉山往復마라손에 五十四分으로 斷然先頭로들어왓고 南昇龍, 鹽飽가連달아들어와 同校講堂에서 藤原義江氏의 올림픽陸上競技候補後援唱會가 열리엇다 그리고 同日午後六時에는 鈴木屋旅館에서 盛大한 解散式이 잇섯는데 이로서 二週日동안의合宿練習은 完全히 終了되엿다

理髮所專門 怪窃盜被逮

이십이일 새벽에 시내길야정(吉野町)이정목 사십삼번지 윤오준(尹五俊)(二七)이가 봉래정(蓬萊町)사정목 오십사번지 송죽(松竹)리발관에 침입하야 리발긔구십삼점 시가오십여원어치를 도적해간것을 소관서대문서원이 탐지하고활동하든중 이십이일 오전한시 십오분차로 경인선 부천(京仁線富川)으로 도망가라는것을 경성역대합실에서 체포한후 취조한결과 그는 오래전부터 시내각리발소를 전문으로 가튼 수법으로 전후이십여건의 범행을거듭하야 그피해액이 천여원에 달하는것이 판명되엿다

仁川中心의通運 結氷으로殆停頓
二十年來의첫現像

【仁川】 령하이십도를뜨한 살인적추위로 인하야 황해(黃海)연안 도서(島嶼)와 연안의부두의 결빙으로 교통이 두절되엿다는바 지난이십일일에는 삼신(森信)회사 갑제환(甲濟丸)은 강화초지(草芝)밧게 겨우 통행치못하고 충청도(忠淸道)항로의 부천통운환(通運丸)은 중도에서 어름으로 인하야 도라오고말엇다 이로인하야 인천부두에는 구년말 화물이산적한형편이며 각종통신기관에 일대지장을 이르키고잇다는데 이는 이십년래의처음보는 사실이라하며 어름두께는 이척내지삼척이나되야 이일기가 따뜻하게 풀리드라도 이주일이상이 되여야 완전회복되리라는데 이추위로는 가능성이 업서 서해안에 큰문제라한다

同和 上咳露 京城府和泉町五 株式會社 同和藥房

代近式"盜跖"型 醉後祖父를打殺
犯人은犯行後곳遠飛

【郭山】지난십사일 평북곽산시(郭山市)에사는 심만긔(沈萬基)(二七)는 술이취하야 자긔조부를 구타하여 그는이상임간 중태에빠젓다가 십칠일 저녁에 절명하여버렷다는데 자세한 내용을 들으면 심만긔는 그날 어떤곳에서 술을 만히먹고 자긔집에 들어와 주정을 부림으로 자긔조부 심정태(沈廷泰)(七〇)는 여러가지로 훈계를 하엿스나 듯지 아니하고 도리혀 조부 심정태를 구타하여 정신을 차리지못한것을 보고 황겁하여 자긔는 어데로 종적을 감추엇다는데 이 급보를 들은 소관주재소에서는 즉시 리익조(李益祚)공의를 대동하고 그집에 가서 해부까지 하엿다고하며 범인 심만긔는 신의주방면으로 도주한듯하다고 한다。

平壤 高級絹織專門 廣林商會

陰酸한末世風景!
詛呪된그들의結婚 男便의追窮끄테
亂倫과殺人의罪가暴露
드디여法廷에선不義의叔父

【釜山】부산부 좌천정(佐川町) 륙백칠십사번지 김평출(金平出)(三一)에 관한 살인사건의 공판은 지난 이십일오후두시 부산지방법원에서 황천(荒川)재판장 다전(多田)중야(中野)양판사의 배석급 송전(松前)차석검사의 립회리에 개정되엿는데 그사건의 내용은 전긔피고는 대정팔년여름에 자긔고향인 경남창원군천가면 가덕리(昌原郡天加面加德里)에잇슬때에 자긔실형인 김평출(金平出)부부가 호렬자로 죽엇슴으로 그의 외딸인 당시 륙세되는 김태렬(金泰烈)을 피고가 양육하야오던바 소화오년봄에 살림을차저서 부산으로 나와 장가를들지못하고 독신으로 지내오던터라 양육한질녀가 차차자라서 나이십칠세가 되고 또얼굴이 이뻐짐을 내여서 강제로유긔한후 그후계속적으로 추한관계를 게속하야오던바 마츰내 소화륙년구월 십사일아침에 불의의씨인 남아를 분만하얏는데 피고는 세간의소문이 무서워서 즉시 압살하야 동동압매축장해안에 내버렷다고 한다 그후 전긔태렬이가 혼긔가됨에 비록 집은가난하나 얼굴이묘한관계로 각처에서 청혼이잇는데도 거절할구실이 업서서 태렬이가 나이 이십일세되던 가을에 부내 대신정(大新町)박긔출(朴基出)(二七)에게 출가를식히엿다한다 그런데그후 종종박긔출집에차저와서 하는행동이 하도이상하야 박긔출은 여러가지로 의심을 품고 자긔처인 김태렬에게 질문한결과 결국의 추행사실이 폭로된것이라한다 공판당일에 재판장의 심문에도 추행관계는 승인하고 압살한 사실은 부인하얏는데 언도는오는 이십팔일이라한다

崇義도不參拜表明
當局校長罷免豫定

평양(平壤)에 잇는 긔독교북장로파계통학교인 숭실(崇實)중학과 숭실전문학교는 신사불참배문제로 드듸어그교장인 윤산온(尹山溫)씨의 교장직을 학무당국이 파면식히엇는데 그후가튼 계통학교인 숭의(崇義)녀학교의 태도 여하가 주목되어 오든바 숭의학교도 드듸어 신사불참배를 이십일일에 표명하엿다한다 따라서 이문제는 압흐로상당히 분규를 거듭할것으로 보이는데 학무국에서는 교장을파면한후의 대책에대하야 다음과가튼 방침을가지고잇다한다 즉 후임교장의 선임문제에 대하야는 숭실재단 리사회에서 속선하야 곳보선(補選)하여오면 그인물에대한 조사를하야 인가여부를 결정하되 만일후임교장을 곳선출치안코 오래동안 문제를 더욱분규케하면 학무국에서는 조선인교육자중에서 적임자를 전형(詮衡)하야 교장으로선출하도록 권고하야 교장으로 취임식히게할터이라한다 그리고 다시신사불참배를 표명한 숭의녀학교장도 파면처분을할터이라하며 서양인이경영하는 긔독교계통학교에서도 금후는 학교재단리사회에는 서양인이 참가함이 무방하지만 교장혹은 부교장은 조선인을 임명식히게 방침을정하고 학교당사자에대하야 권고하는방법으로 지시를 할터이라한다

天氣豫報

七七六미리의 大陸高氣壓은 北中國으로부터 朝鮮을 經由하야 日本內地로 擴大되며 千島方面은 氣壓이 얏다 南朝鮮은 湖南地方及 九州對日本은 흐리며 慶建에 降雪이잇다 表日本은 日氣가 조코 一般으로 季節風이 衰退하야 치위는 풀린다

豫報·京城地方＝今夜는 晴, 明日도同 京畿道地區＝同

昨日 最高 零下五度 最低 零下十四度 今朝 最低 零下十度七 今日正午 零下四度

高血壓腦病 神經痛喘息 혈액을정화하면낫는다 中風

중풍은안낫는다고하나 파리잡는약과기타만흔의약을발견하야유명한 今津佛御理學博士의 大阪禁病研究所에서는 전문의학박사기술자를 다수히모아서 이병의원인을연구한결과 (一四五)혈액이탁하여서순환이나쁘게되는 것으로 「혈액을정화하면낫는다」고하는것을확인하고 이것을실지에 시험하야 유명한혈액정화제를완성하야 이것을 「봉보」라 이름하고 매일 전국각지에서 의뢰하야오는 환자에게 반포하기로 하엿다 생각컨대 이병의초기로부터 만성의 사람 고혈압, 뇌일혈, 반신불수, 손발이 저리는 것, 신경통, 천식 등으로 고생하는 분은 비관말고 이 지방은 여러분의 무료로 드리니 신청하야 긔입하야 보내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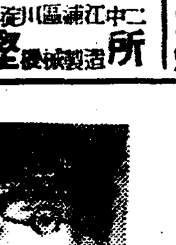
갓난애보다가벼운포ー타불

好職業 男女遠近不問自宅執業○勤人學生副業最良○收多無休○照會見本進呈 大阪大軌線生駒停留所前 博文社

恩給 京城府授恩洞一六〇 鄭商會

觀相大方家 松居先生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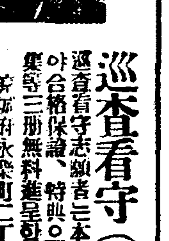
金儲 穀物膨脹機 カタログ呈 大阪市西淀川區浦江中二 石橙所



祝=東洋第一자랑인 伊川郡萬山溫泉發展 [illegible] 昭和十一年一月十七日 黃海道金川郡左面高山里 李丙德

原綿 中入綿 蒲團綿(이불솜) 都賣 京城府觀水洞一四番地의二 漢城製綿株式會社 電話光一三八一番 振替京城一九〇三〇番 朝鮮絹織株式會社의絹織物도都賣합니다

新祝落成記念 朝鮮料理 すき燒 經濟的大衆向料理元祖 聚園 淸進洞一六七 電光二六九三



巡査看守(講義錄) 巡査看守志願者는本會講義錄卒業에依하야合格保證, 特典으로는鮮人巡査試驗問題集全三冊無料進呈함(但入會者에限함) 京城府永樂町二丁目二番地 朝鮮警務學會 電本(2)三〇三〇番 (規則書卽送)

오케ー 蔡奎燁新專屬 朝鮮建設의太陽 노래 第一回新作品 近近發賣 流行歌 울며새우네 獨唱 蔡奎燁 오케ー레코ー드 OKEH

一月二十二日より二十八日まで 上映時間表 [illegible] 國際發聲ニュース メトロ・ナンセンス映畫 頓間給仕四人組 下加茂トーキー 大每東日連載小說の映畫化 鍼手繰り音頭後篇 坂東好太郎、月形龍之介、飯塚敏子 コロンビヤ彩色漫畫 お伽の靴屋 第一映畫トーキー 故夏目漱石原作 伊藤大輔脚色 巨匠溝口健二監督 虞美人草 浪花館

京城府鐘路二丁目十一番地 産婦人科 花柳病科 三光醫院

創立明治參拾貳年 京城府南大門通二丁目 株式會社 朝鮮商業銀行 頭取 朴榮喆 專務取締役 堀正一 支店 京城南大門, 同鐘路, 同東大門, 同本町一丁目, 同本町四丁目, 龍山, 仁川, 平壤, 利川, 淸州, 群山, 全州, 裡里, 長興, 康津, 統營, 馬山, 鎭海, 釜山本町, 同牧ノ島, 同富平町, 同榮町, 晋州, 方魚津, 元山, 永興, 咸興, 端川, 浦項, 南浦, 會寧, 沙里院, 信川, 新義州, 定州, 平康 出張所

二月新譜
獨唱 내아기잘자거라 / 故鄕의家 250
流行歌 고달픈신세 / 離別의혼늘 750
자즈송 자미잇는노래 / 누가너를미드라 175
新民謠 靑春歌 / 老春歌 300
劇 피에어린師弟愛 上下 200
쭈너盤
短歌 鴻門宴(上下)
俗謠 六字歌 / 興打鈴 175
三重奏 鳳凰曲 / 醉袍舞
南道巫曲 천명당 / 수정사 250
佛歌 祝願 / 고사 250
一枚一圓

11.1.23 C.C.C. LIBRARY

純植物性

メヌマポマード

메누마포마-드

整髮과個性美

메누마는毛髮을但只곱게만보이게한다는것보다차라리머리털을참으로潤나게하는포마-드다!

그러면누구나더新鮮하고自然스럽게머리에손질하야個性美를躍動식히실려면 메누마의愛用을언제든지疎忽히하여서는아니된다!

香氣佳快 光澤自然

粘稠適度 洗髮容易

000147

コロムビア專屬 中野忠晴

定價 特大瓶 一・二〇 大瓶 ・七〇 小瓶 ・五〇 新小瓶 ・三五

大阪 東京 井田京榮堂

MP—28

이래저래쫄들려 폐만흔이중과세

음력정월은그만둘때도됏건만— 책임은녀자에게만타

설날을 두번 쇠는 것이 조흐냐 나쁘냐 뭇는다면 누구시든지 나쁘다고 대답하지 조타고는 대답하지 안 하십니다。또 어느 설로 정해노코 쇠는 것이 합당하냐고 뭇는다면 누구시든지 양력으로 대답하지 음력으로 대답하지 안 하십니다。그런데 왜설을 두번 쇠입니까? 왜 음력설을 업새지들 못합니까? 습관의 지배하는 힘이 세다고 할까요? 우리들의 진긔썽이 부족하다고 할까요? 녯것을 지키는 것이 미덕(美德)이올지 모르나 버릴 것을버리지 못 하고 고칠것을 고치지 못 하는 것이그보담 더큰 악덕입니다。아즉도 음력설이 흥왕한것을 보오니 거긔대한 일반의 관심을 또한번 이르켜 보지 안 할수업습니다。

×

그런데 음력설을 왜 지키느냐고 그 원인과 이유를 뭇는다면 사내들은 거개 안악네와 애기네게로 책임을 돌려 보냄니다。그러나 어린애기네야 무엇을 아오릿가?전책임이 **안악네에게잇는** 것이나 조금도 다름이 업습니다。그러니 안악네들은어하십정으로 과세를 꼭 두번씩해야만 된답니까? 빗을줄려도 두차레나 졸리고 랑비를 하야도 두차레나 하고어수선하게 시간을 보내도 더 보내게 됩니다。더구나 그 한가지로 인하야 신구식 을찌 갈찌 전생활이 도모지자리가 잡히지를 안케 됩니다 음력설을 고집 하시는 것이 그 무슨 까닭이오니까? 양력설을 아조 설로 쇠다기로 **허전할것이무엇**이요 섭섭할 것이 무엇입니까?

×

그 책임을 녀자들에게만 돌리는 것은 사내들의 핑게라고 반대 하실는지도 모르오나 사실상 그 책임은 남자보담도 녀자에게 더만흔 것을 부인치 못합니다。그래도 어린것들 설비음을 시켜야 안하오라든지 아모러튼지 떡국은 끄려야 안하오라든지 사살에 푸념에하시는안악네라그 **책임을면하시지** 못합니다。그런데 양력설에설비음을 시키기로니 옷모양이 안남니까? 또 그날 떡국을 쑤어 자시기로니 떡국맛이틀립니까? 그저 좀 편협하신 안악네소견으로 전부터 설이라고 쇠어오든것을 차마 섭섭히 지낼수 업다는 그뿐입니다。그래서 습관의 종이되고 또 그래서 생활의 개혁을 이루지 못하는것입니다。

×

아니、어른들에게는 세배를다녀야하고 **조상님네에게는** 차사를 지내야 안 하나요? 더군다나 세찬도 보낼 곳에는 보내야지요? 그럼 저렴 음력설이 업서지지 안는 것입니다。일부러 고집하려 고집하는 것도 아니랍니다。이러케 생각하면 변명도 됨즉합니다만흔 참그러타고 곳승인할수는 업습니다。그모든것을 양력설로 옴겨가지고 하더라도 번됨것도 업고 할날것도 업고 도리어 시세에맛는 편리한 처사입니다。자、그러지 말고 안악네들이 일어나서서 한번 **이중과세를폐지** 하자고 부르짓고 실행해 보십시요。그래서 사내들의 말이 사실로 핑게라는 것을 실지로 증명해 주십시요。

무척까다로운 능직빨래

이러케하면곱고손쉽게된다

비단 능직은 노인과 젊은이를 물론하고 두루매기 가음으로 만히들 입는터인대 제일딱한것은 세탁하기가 여간꾼란치 안습니다 곱게다드마서 입으면 너머 지나치게 반들거려서 몃번 입지안흐면 기럼때 무든것처럼 아주보기 실습니다 또 인조견처럼밟아 대리면 그것이섬질이 팔팔하기때문에 좀체로 구김살이 잘펴지지 안습니다

능직을 세탁할때는 약간 미지근한물에 조혼세탁비누를푸러서 한이십분간 당거두엇다가 빨내돌에 내노코 부드러운 솔로 쓱쓱쓰러서 빤다음 깨끗히 워서 물을 짜지말고 그대로 말립니다 손으로 보통빨래 놀리 듯 주름너서 빨거나 물을짜서 말리는것은 아주금물입니다 그 다음 풀을 묽게 개어 고흔풀체에 바처서 먹이되 이때도 함부로 주물너서는 못씁니다 거저 척척뒤적거려서 풀이 골고루 든다음 그대로 너럿다가 물끼가 자저진다음 개켜서 밟되 대림질하기 적당할때까지 말리지말고 밟어서 안쪽으로 대려 노호면 어느것이 새것인지 모를만큼 훌융해집니다

녀자로지내다가 남자로된이야기

오백미돌과 팔백미돌 다름박질에 세계긔록을 가지고잇는 『체코슬로바카』의 녀자선수 즈데나·쿠부코와 양은 지난섯달예수술을받은결과 훌륭히 남자가되어 버렷습니다。그래서 전세계 야—단들입니다 현재 의의학이 발달되어 남자가녀자되고 녀자가남자되고 하는 것이아니라 사실을 말하면원체 남자로태여낫스나 기형적으로 녀자처럼 보여온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자신도녀자거니하고 지내려온게지요

—사진은 남자가되어 다름박질하는쿠부코와 녀자선수로 활약하든당시의쿠양

女性界消息

▲宋敬愛(女醫師) 十八日平壤府船橋里一四二番地에서 遭內艱喪

主催 京城女子基督青年會
後援 朝鮮日報社學藝部

第8回 女子懸賞歌闘大會

時日 二月一日(舊正月九日 土曜日)午後七時
定員 五十名 會費 二十錢
場所 京城女子基督青年會館(西大門町一丁目 電車停留場앞)
申請 定員되기전에곳하시요(申請場所는 上記場所로)

오한이듬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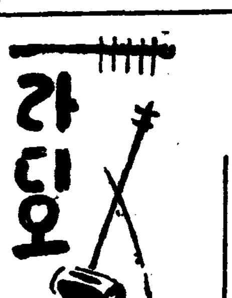
問 금년삼십세된녀자인데 십륙세때부터 약일년간 체력증진을목적하고「아령운동」을 하다가 지금은중지하얏습니다 그런데 금년일월부터는 매일오후가되면 열이오르며 오한이납니다 의사에게 진찰하야더니 늑막이잇다고하여 치료를밧사오나 효과가업습니다 자세히 가라처주시기바랍니다 (黃海一讀者)

答 늑이잇다하는말은 늑막염(肋膜炎)을 말삼하는것가습니다 그러나 당신증세로보면 늑막염보 내과전문의사에게 진찰을바다치료케하십시요 (大學病院伊藤內科朴東來)

귀밋헤점

問 생은 금년 십구세의 미혼남자입니다 저는 이상하게도 날때부터 귀밋헤 직경일촌쯤되는 거문점이 낫는데 커갈사록 그것이 커저서 그렷습니다 그것이 대단히 보기흉하니 수술이라도 하여서 떼여 버릴수업슬가요? (部落洞 ×生)

答 수술로 간단히 떼여 버릴수잇슬것입니다 (醫學博士 金晟鎭)



二十二日(水曜)

◇午後六時 童謠 李定鎬
◇同六時二五分 經典解釋 父母恩重經(二) 佛專講師 金敬注
◇同七時三〇分 講演 中央日報社會部長 朴八陽
◇同八時 새타령外 一、報念 二、새타령 三、六字백이 四、興打鈴 吳翡翠 愼淑
◇同八時二五分 時調 一、平時調 二、사설時調 三、지름 高永泰 大笒 朴鍾基 奚琴 池龍九
◇同八時四〇分 喜歌劇 興打鈴 全二景 金海雲案 配役 朴永昌(不良靑年)…韓雲瑞 金寶燮(그의親舊)…李流星 李淑瓊…(군밤장사)吉七水 張愛娘(聲樂家)…崔庚善 張鄕娘(그의동생)…金紳英 張大用(그의父親)…金海雲 桂順(下女)…金玉姬 放送劇新人會 演出 李如水 効果 効果班 靑樂伴奏 삐이오링 尹宮燮 피아노 金泰雲 맨도링事 成玉 아코듸옹 趙憙成
趣味와敎養 金晋燮
◇同七時三〇分 國境警備慰問의밤 (東京)一、第一線의사람들에게人事 丸山鶴吉 (大阪)二、歌謠曲 美奴 ‖京城으로부터全中‖三、人事 平安北道知事 大竹十郎

第一放送

◇午前一〇時三〇分(大)婦人講座
◇午後十二時五分(東)재즈
◇同二時(東)婦人時間
◇同六時〇〇分(東)合唱
◇同七時三〇分(東)趣味講座
◇同八時(東)一人一話

二十三日(木曜)

◇午後零時五分 하와이안기타— 一、산타루치아 二、라·팔로마 三、異敎徒의 사랑가 四、궐러키·호—ㅁ 五、하와이의 노래 六、올드·블랙죠— 七、칼렛지의밤 八、콜로라도의달 스패니슈·기타—鄭明來 하와이안기타—鄭永來
◇同三時一五分 家庭時間 女性의覺醒 李貞圭
◇同六時 淨樂 一、獨唱…金蓮淳 1、悲歌 2、靑山流水 二、피아노獨奏…洪金珠 處女의祈禱 三、合唱 1、화토ㅅ불 2、菊花 進明會 伴奏 李美佐保
◇同六時二五分 趣味講演 梅花이야기 文一平
◇同七時三〇分 講演 담배와健康 醫學博士 尹日善
◇同八時 共樂合唱 一、水仙花 포—만作曲 二、고요한南方노래…아듸티作曲 三、푸른草場 스듀와드作曲 四、질거운새! 홀스트作曲 梨花글리—클럽 指揮 尹聖德
◇同八時二〇分 歌曲 一、羽調商謠 二、羽樂 三、界樂 四、界樂 五、編 金美花 徐山玉 洋琴 金相淳 大笒 金永根 杖鼓 金一宇
◇同八時五〇分 라듸오·드라마 作家生活譜 (크리트네르原作李軒求譯) 全一場 劇藝術研究會 演出 柳致眞 効果 李喆元 (配役)트리엘…申泰善 그의妻…吳愛蘭 下女…林秀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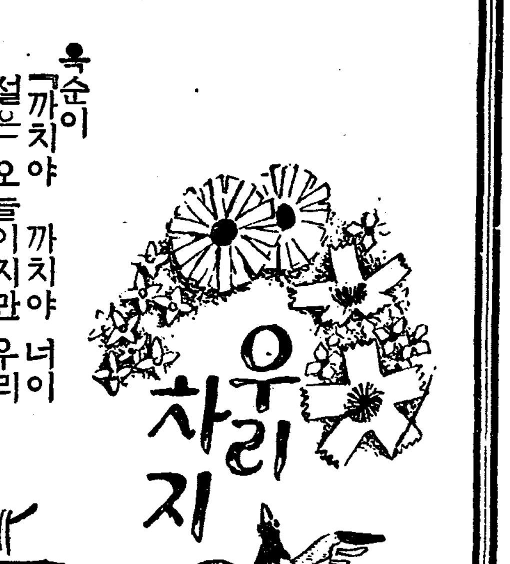
五、國境警備의노래 警察官有志
◇同八時二五分 靑律 一、鄕唐交奏 二、吹打 奚琴 大笒 細笛 杖鼓 趙一石 金聲 李鶴 金一宇
◇同八時五五分 寒邊歌外 一、寒邊歌 二、開城難逢歌 三、漢江水打鈴 四、사발가 五、방아타령 六、노래가락 七、唱夫打鈴 申海中月 大笒 金永根 細笛 高毅德 奚琴 池龍九

第一放送

◇午前一〇時三〇分(東)어머니의時間
◇午後〇時〇五分(大)管絃樂
◇同二時 家庭講座
◇同六時(東)이야기
◇同六時二五分(名)座談會
◇同七時三〇分(東大)國境警備의밤
◇同八時二五分(東)琵琶
◇同八時五〇分(東)浪花節

二十四日(金曜)

◇午後〇時五分 놀양打鈴 一、놀양 二、앞산打鈴 三、뒷산打鈴 蘇完俊 韓仁學 柳開東
◇同三時一五分 常識時間 衣服의原料 韓辰範
◇同六時 맨도린合奏 一、幸福…프렌드作曲 二、變奏曲…다까하시作曲 三、니넷트…파라시作曲 四、아이들힘꼿하는…다까하시作曲 五、黑人 춤…야마다作曲 高橋맨도린앙상블 指揮 高橋功



옥순이 『까치야 까치야 너이 설은 오늘이지만 우리 설은 래일이다。』

까치 『그래 설빔은 무엇 무엇햇니』

옥순이 『나는 웅、비단색동저고리、금박댕기、수노흔괴붉주머니、새보선에 새신발이란다。너는 왜 설빔 안입엇니』

까치 『우리는 요압 강물에 가서 목욕만하고 새옷은 안가라입는다。』

(글쓴사람 한수현)

當選小說

寺下村 (14)

金廷漢作 安夕影畫

어머니는 한참동안 혼을 입코 부억바닥에 주저안저 잇섯다

외양간 압헤서 황덕배만 피우고 잇는 아버지의 손에는 납세고지서와 농사조합에서온 비료대금 독촉장이 구겨저들엇다 아버지도 이윽히 무엇을 생각고 잇다가、외양간으로 들어가드니、무심히 소등을 쓰다듬어 본다。그것이 마치、악착한 생활에 부닥긴 자긔의 안해나 되는듯이。긴눈섭 속으로 숨들어간 그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고여잇섯다。

철한이의 결혼은、그리고 근 한달 뒤에 행례가 잇섯다。

八

『아이구 어느 혀가 한밭이나 빼저죽을놈이 그버릇을 버혀갓노? 이승에서 안맛즈면 저승에 가서라도 물버락을 맛자죽을놈! 그버릇을 먹고 제가 살줄아나? 자가창 천동갈만동갈이나 나고야말것이다。』

하며 봉주어머니가 몽당치마바람으로 이끌록 저끌록 외고다니고 호세징수를 나온 면서긔가 그를 찾아다니든날、섬동리서는 구장이외 고서방、들깨、또쭐이들 사오인이 대표가 돼서 보핑사농사조합으로 갓다。

그들의 소원은 자겨들이 빌려는 소위저리동자금의——대부분은 비료대금이지만——지불기한을 좀 연긔해달라는 것이엇다

보핑사소작인들은 해마다 소작료와 소작료매석에 대해서 너되식이나 되는 조합비와、비료대금과 그에따른 리자를 내어야만 된다。그리고 비료대금은 지불기한이 호세와 갓다。

의자에 기댄채 인사도 밧는체만체하는오기봉은、구장의 말을 귀밖으로 한참 시끼시마겸 대기에 낙서만하고잇드니、비로서 정색을 하고、

『그런 성가신 논은 부치지마는게 어떼요?』

해던진다。

『……………』

『해마다 이게 무슨짓이오?나도 인전귀차안소! 호세만 내고 살게거던 어듸살아들 보시오——』

『누가 어듸 안내겟다고 해요 조금 연긔를 해달라는게지요』

이번에는 또쭐이가 말을 바

『내든 안내든 당신들 임의대로 해보시오。나는 이이상더당신네들과 이약이안하겟소。』

기봉은 살결조흔 얼골에 저윽히 노긔를 띄우드니、뒤에안진 꼼보를 보고서、

『고서방 당신은 또 뭘하러왓소。작년것도 못다내고서 무슨낫츠로 여긔왓소?』

해던진다。그리고 그는 다시 장부를 뒤지면서 하든일을 계속한다。

一행은 혀되이 밖으로 나왓다。

그리고 몃칠뒤、저수지및 꼼보의 논을비롯하야 여긔저긔그예 차압표가 붓기시작햇다。ㅡ농부들은 압아보지도 못하는차압표를몃번이나들어다보고 돌아다보앗다。——피를 흘려가면서 지은 곡식에 손을 못대라니가 그들은 억울하고 분하기보다 목숨을 빼앗긴다는 생각이 압섯다。

고서방은마참내야간도주를했다

『이비오는데 그어린것들을 더리고 어듸로 갓단말인가!』

아튼날 아침、동리사람들은 애터지는 말로서 그의 뒤를 염려햇다。

무심한 가을비는 외좃일、지어두고간 벼와 차압표를 차게 때렷다。

무슨 불길한 징조인지 새벽마다 백호ㅅ재에서 여호가 울고、외상술도 먹을 곳이 업서진 농부들은 저녁마다 야학당이 터지게 모혓다。

그리하야 하로아침、깨어진 징소리와 함께、섬동리농부들은 일제히 야학당으로 모혓다。그들의 손에는、결국못한 빗지단과 콩단、모밀단이 젭혀잇섯다。

이윽고 그들은 긴술을 지어가지고 차압취소와 소작료면제를 목표로 묵묵히 마을을 떠낫다。여자들은 전장에나 보내는듯이 동구밖어로 고개를 내가지고 그들을 보냇다。만약 보핑사에서 들어주지안는다면——하고 뒤일을 염려 햇다。

그러나 또쭐이 들깨 철한이 봉주——이들 장정을 선두로 빈집단을 든 무리들은 어느새 발서 동리뒤 산ㅅ길을 더우잡앗다。첨업는 애색기들도 행렬ㅡ짝문이에 붓터서 절태우러간다고 부산하게 떠들엇다。(乙亥、十一月)(끗)

女性의最高道德! 最大의자랑!!

良妻로부터 賢母되는길은?

—第一「安産」問題의解決로부터—

賢母가되는 健康兒를나코십다는熱望—姙娠이라는것을알게된瞬間부터생기는人間的인母性愛의本能的要求이다。健壯한愛兒를安産하여야되겟다는것은 母親이되려하는女性에게는바라고바라도곳이업는希望일거시다。

남마다늣게지는 胎兒의發育으로가차운將來의길옴이가슴에용소슴치게되드라도 달수가차면서부터 어머님은自己自身에자저지는疾病的異常으로 苦痛의한숨을쉬는일은업슴닛가? 姙娠에따러단이는諸種의疾患—惡阻、脫毛、齒痛、傷出性疾患、等等

母體의疲弊! 이것이胎兒에支障이업고말것인가 그러고自己自身에도 아무탈이업슬까?하는不安은 當然히몸이무거운 女性의마음을 괴롭게하고 焦燥하게할것이다。

大體엇더케 하면조흘가?

그러나 알흐로 걱정하기前에그것이일어난原因을 알어낼것이다 조금生覺하면아실바와가티 胎兒는健全히發育하려고 母體에서주는모든養分을攝取하야 죽죽成育하려고한다 참그야말로無心히成長하야가는것이다。

그럼으로 母親이멋모르고잇다가胎兒가 養分을빼서갈ㅅ때지게되는일이잇다고하면 그야말로兩者다(母體도胎兒도)가티危險할우려가잇다。母性으로서그런迂遠한일이잇서서될것입닛가?

그러면 貴重한母體의健康을大樹와가티 鞏固히하고 胎兒를健康하고도 優良兒로서 安産식히는것에는 如何한良策이잇는가?

이것을 生覺하기前에生理的現象인姙娠及授乳에 如何한榮養素가 特殊한關係를가진것인가를醫學的根據에 立脚하야서 말슴하여드리겟다。大阪醫科大學敎授片瀨淡博士는 左와如히 말슴한다

『婦人이 姙娠한즉 胎兒가子宮內에서 漸漸成長한다 그리하야 約 姙娠二個月頃부터

胎兒의骨骼이 形成되는

骨質의 大體은 카루슘의化合體이다。그러면 胎兒의骨骼의카루슘은 어데서온가—말할것도업시 母體가食物에서 攝取한카루슘이 血液을 따라胎盤을通過하야서 胎兒의骨骼에 沈着하는것이다。따라서母體로부터 胎兒에 供給한카루슘은 달수가차가는데따라 卽胎兒의成長됨에따러서 多量을要하게되다。더구나 吾人의日常食物中에는 貴重한카루슘量은 比較的 적고이와反對의 作用을가진 마구네슘이만홈으로 그러치안트라도 카루슘缺乏을 늣기고 잇는 母體는姙娠하야 달수가차면서부터 漸漸減少하게되즉 胎兒의發育에影響을밋치게되야 母體의 카루슘이缺乏되대로두면 胎兒의發育에 顯著한阻害를 招來하게되다。

더구나 (이카루슘의缺乏은여러가지傳染病에對한 抵抗力을弱하게하야、肺結核을誘起식히고、또는從來輕微하던 病勢를增惡케한다)일로써보면

産前産後에 保健의열쇠는

실로 카루슘自體가쥐고잇다해도過言은 아닐것이다。

胎兒에對하여서나、母體에對하여서나카루슘이 얼마나必要不可缺한榮養이며、그常用的攝取가安産의絶對的條件이되고잇는事實을容易히首肯할것이다。

카루슘의服用은母體의카루슘缺乏에基因되는 諸種의障害物인惡阻、傷出性疾患、齒痛、脫毛等을防止하며惡阻를輕減하고 又는防止할뿐아니라、分娩時에 子宮의收縮을自由롭게하고 또分娩後에 出血과 惡露를 輕減케하며、乳量까지豊富케하고、乳質을佳良케하는等여러가지貢獻을가지고잇다。

이런確證은 內外許多한文獻에

「安産을爲하야」 와다카루슘錠(ワダカルシユム錠)

은우리의이至重한使命을띄고등場한카루슘製劑界의先驅者이다。

本劑가카루슘의偉効를證明方法으로써世上에宣傳한以來、世人의往往히誤認的이되도록카루슘時代를建設하게된것은참으로理由가잇는일이다。

往往히一般的榮養効果를高調하기爲하야 安産을目標하는滋養劑도잇기는잇스나그中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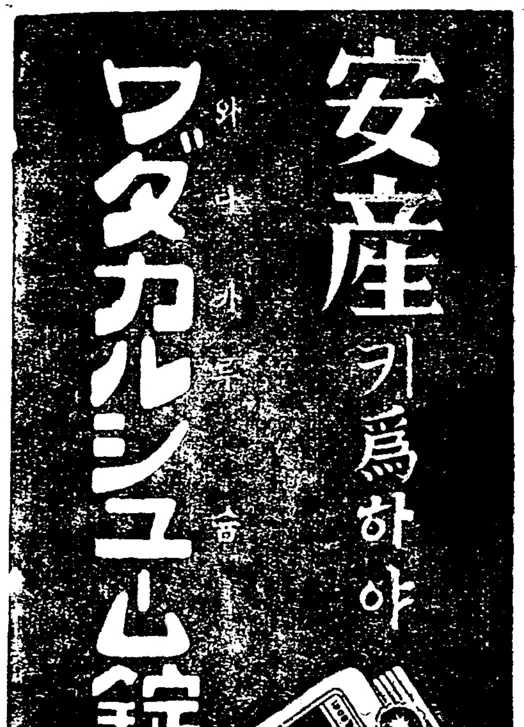
毅然하게 빗나는存在

를보이는「安産을爲하야」와다가루슘錠(ワダカルシユム錠)이 檜博士의推獎(博士自身이自體에 試驗한 카루슘 分缺乏을補給한 實例가잇다)을입고또카루슘에關한 世界的研究者片瀨博士의 親히하신鑑査(本品이商品이되기까지에 內容의品質을鑑賞하야 一瓶마다鑑査票를 附치서內容確保證으로서市場에提供하고잇다)를通過하고잇는事實에 依하야서이우에더累言을할必要가업다고生覺한다。

無代進呈

詳細한事項을아시고저하시는분은左記住所로申込하야주시면「安産키爲하야」라고題目한小冊子와其他文獻을無料로進呈합니다

大阪道修町
和田卯助商店
全國藥店에서販賣함



기침에 コデチン
고 데 친

適應症
感冒로된기침·氣管支가타루·小兒기침·肋膜炎·肺炎으로된기침

全國有名藥店에잇스니 請求하시라

類似品이만흐니故로選擇이必要합니다

【說明書送呈】

第一次 第二次 第三次 第四次

鄕歌解讀에 就하야

特히 願往生歌를 中心으로

⑬ 梁柱東

以上 나의 解讀을 一括하면다음과갓다。

달하 이제
西方꺼정 가샤리고
無量壽佛前에
닐(어)곰다가 숣고샤셔
誓音기픈 尊애울워
두손모도호숣아
願往生 願往生
그릴사람잇다 숣고샤셔
아으 이몸 기텨두고
四十八大願일고샬가

[大意] 달아, 이제西方까지가서서 無量壽佛前에 말슴傳해주소서, 信誓 깊으신 尊을 우러 두손을 몽사 옵고 願往生 願往生 그릴 사람잇다고 살와주소서。아아 이몸을길어두고 四十八大願을 이루시면 어이할꼬。)

五

以上은 小倉博士의 解讀을中心으로하야 그에對한 部見과나의 試論의 一部를 無秩序하게 적은 것이니, 鄕歌古歌의 通括的話題은 다른 機會에 모두어서 따로히 發表 하려고 생각한다。압헤도 말하엿거니와가장 遺憾인것은 우리學者間에이方面의 研文學的研究잇슴을 아즉만이 듯지못한것이다。近年에 金台俊氏가 鄕歌의解說을 시험한것이 잇스나, 그社會學的、發生學的에 沒頭할뿐이오, 肝要한 『텍스트』研究에의 關心이 적은듯하다。텍스트어시 어떠케무엇을 解說할까。不安한 讀法을根據로하야 社會史的說明으로 發進하는것은, 正히 하나의 冒險이오 심지어 徒勞이다。該氏는 近著『朝鮮歌謠集成』에서 鄕歌의部分은 小倉博士의 解讀을 그대로 追從하엿고, 願往生歌와 같은것도 無批判的으로 그대로『譌誤의贅, 戮批의破戒를 誡한노래』라 解하엿다。

나는 이教說의 末尾에 다음과갈은 數言을 附記하여야 一種의 義務를 늣긴다。이一文의內容은 小倉博士에게 關聯함이만으나, 내가 批評의 對象을 삼은 著述은 이미 六七年前에 된 博士의 舊著요, 博士自身도 그後 該著의所說에就하야만은 修正을 加하엿으리라 생각한다。그것이 아즉 發表되지 안으므로, 나는 不得已 該著에 잇는 대로의 解讀과往復을 問題 삼엇으나, 舊著로써 批評의 對象을 삼은것은 博士에 對하야 참으로 未安한바이다。博士의 該著가 近者 學士院에서推賞을밧앗다는 消息이 잇으니, 或은 舊著의 誤謬에 就하야 이미 만은改訂을 加한것이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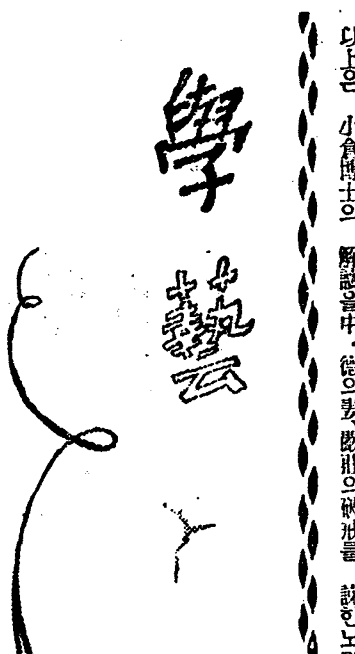
듯건댄 小倉教授는 그門下의 朝鮮學生들에게 『鄕歌研究와 같은것은 本是 君輩들의것이다。나의研究가 今後 君輩의 손에서 만히 修正되기를 바란다』고 말슴하엿다 한다。나는 教授의 謙虛한 態度를 깁히 景仰하는 同時에 이一篇을 草하야서 教授의 雅量한 教示를 仰하기로 하엿다。나와가튼者는 朝鮮語學의 後輩로 하지마는, 實은 그 教語에잇서서 教授의 著述에 배운바가 만타。教授는 先輩의 立場에서 이一文의 唐突과 粗笨을 容許하리라 생각한다。(乙亥一月)

[附記] 이一文을 다시 讀함에 잇서서 筆者는 다음數言을 附記코저한다。나는 鄕歌研究中에, 元來舊說이란 것이 年代가 오래엿다고 그리 엄청나게 變하지는 안는다는것을 切實히 늣겻다。흔히 門外에 잇는이들은 鄕歌의 年代가 멀리 一千四五百年前에까지 溯上하므로 지금은 到底히 字句幾字도 알아볼수업스리라고 생각하기 쉬웁다。어떤이는 小倉博士의 著述의 難解함을 보고, 아즉도 덜어려운 弊端이 잇다고 말함을 들엇으나, 이것은 全혀 謬見이니 實은 小倉氏의 解讀中全部 無解不通處는 거위氏의 誤讀의 結果요, 正解를 한다면 그리難解한것은 아니다。勿論 現行語와는 適處가 만타。古語가 잇을것이나 現行語와 李朝初期의 古語와다르지안는 程度마치 또한번 그보다 더 올라가는 程度의 差異인즉, 多少의古語素養이잇는이에게는 그대지 難解할것이아니다。엣것을 研究하는이나 보는이나 다 너무 그것을 難化하는 習慣과 趣味가 잇음은 우리의 警戒할바다。나는 新羅에 나오는 古語를 調査하다가 以上의 늣김을 가지게 되엿고 더구나 鄕歌풀리에 數個月을 苦心하는中 꼭 그러타는 確信을 어덧다。讀者는 시험하야 願往生歌의 解讀을 읽어보라 거위 大意의 說明을 기다림이 업시 大意를 了解할 수 잇슬것이오, 더구나 그노래가 現今 우리의 韻律과 低하게 들어맞음을 볼것이다。韻律은 一千年이지나갓다고 그다지 滄桑의變이 잇는것이아님을 늣기는同時에, 先人의遺業에對한 愛着과 親熟感이더욱 油然히 이러남을 禁할수업다。

年前에 春園先生을맛나 話題가 鄕歌研究에 미치섯다。氏는 그때『異次頓供養』을 構想함이엇든지, 三國時代 人名、地名等 讀法에 對하야 非常한 興味를 가진듯하엿다。一夕을 歡談하엿는바, 春園은 特히 『鄕歌에 使用된 말이 그다지 近世語와 다를것이 아니리라 생각하는데 어떠한가』를 뭇엇다。나는 氏의 卓越한 先見에 오직 敬服하엿고 다음 敎服을 마지안햇다。勿論 그리 어렵지안타고 全혀 쉬운것은 아니다。적어도 千餘年間을 難解에 붓처든 秘密의 殿堂이다。全篇二十四首의 解讀은 적어도 數年의 刻苦를 要할者요, 個中에는 分明히 誤字、脫字도 잇는터이므로 永遠의 秘密대로 남을 뜻한것도 잇다。左右間 今後 긴歲月을 두고 만흔사람들이 研究와 修訂을 加하야 漸次 原貌를 發揮케 될것이다。나는 아마한 覺悟와 또한 一種의 樂觀的熱意를 가지고 爾來 이것의 내깐의 完成을期하고 잇다。

―筆者―

學藝



우리가 要求하는 『理論과 實踐』

④ 朴鍾鴻

數世紀를 通하야 큰伽藍의 寺塔과도기치 노피소사잇든 그들의 思想體系가 漸次로 動搖하야 흔들리기 始作하고 어제까지도 帝王과까치 君臨하고 잇든 觀念의 勢力이 一朝에 그**權威**를 일코 잇지아니 함니까。우리들은 저 『루넷산스』에잇서서 또 가까이는 저 啓蒙時代에 잇서서도 이러한 變動을 보지못한배 아니나 오늘날에 잇서서의 轉換은 또한 보다더큰 變動을 우리들의 實踐의 理論的 把握에 잇서서도주고잇는줄압니다。

이제바야흐로 市民的人間은自己네들의 不安을느끼고 危機의到來를 부르짓고잇든 잇때에잇서서 時代는 새로운『라이프』의 人間建設을 要求하고잇스며 새로운人間概念의 確立을 强調하게되여감니다。現代의우리들이要求하는바 實踐은 單只個人的行爲와 聯結시킴으로서만은 理解하기가매우 困難할줄압니다。오늘날의 우리로서는 人間을 市民的 個人을 한거름 넘어서서 새로히 建設하야 될것과 마찬가지로 實踐을 個人의 行爲로서만 出發하야 把握하려고 한다면 그亦自己의 利益만을 爲하야 오로지打算的行動을 取하는 市民的個人을 原理로하는바 個人主義에빠지고말것을 注意하지안을수업습니다。實로 現代의 이社會에잇서서살고잇는以上 絶海孤島에 홀로살엇섯다는『로빈존』의行動을 그대로본바들수는업슬것이올시다。이와가튼 社會實踐의 理論이라사 비로소우리의實踐이 要求하는바 **理論**일수잇슬것이오 그때의實踐은 理論의 指導를밧는 即實踐自體로 보아 他者인理論의 媒介를通하야 實現되는바 가장嚴密한意味에잇서서의 實踐이 될수잇는것이올시다。理論과 實踐이라는 두對立物이 여기에서는 서로 制約을 주며 밧는것이오 即 實踐은 理論의 指導를 바듬으로써 發展하고 그리하야 發展된 그實踐은 또다시 새로운 段階에잇서서의 理論을 要求하는것이올시다。이것을 理論側으로서 보다면 理論은 實踐을 發展시킴과 同時에 그實踐에 依하야 다시금 自己를 發展시키고 그리하야 發展된 理論은 또다시 새로운 段階에잇서서의 實踐을 要求하는것이올시다。理論과 實踐은 各其 辨證法的 統一에 잇서서 여러 段階를 通하야 서로서로 發展하는것이오 따라서 그때의 理論은 決코 現實의 地盤을 游離할수업게되는것이올시다。

實로 具體的인 우리 人間이란『로고스的人間』即『호모·사피엔스』로 理論만으로 살수잇는 人間도 아니오 制作的人間 即『호모·화-베르』로서 實踐하고잇는 人間이것이올시다。古來로 歷史上에잇서서 이 두가지 人間『라이프』中 하나를 더욱 重하게녀겨오힘이 잇섯스나 이 두가지『라이프』는 結局 關係업는 두種類의 人間인것이 아니오 한개의 具體的人間에잇서서 서로 속속드리 **貫徹**하야잇는것이올시다。近年에 와서『事態自身으로 도라가라』는 말이 哲學에 잇서서 마치 한개의 重要한 標語가되어잇거니와 그亦 이러한 具體的人間自體의 如實한 現象을 赤裸裸하게 把握하려는 意圖에서 나온 點이 업지 안타고 볼수잇슬줄압니다。何如間 모든理論은 各各그時代의實踐과 서로聯結하야 거기에서 現實的意義를 가지게되는 것이오 또한一定한 社會的役割도 다한다고 할수잇습니다。現實的生活과 聯結되는思想뿐이 表象할수잇슴은 平凡하고도 儼然한 眞理올시다。그리고 이때의 實踐은 單只理論의 應用도아니오 認識의眞理性의 基準으로서뿐만 잇슬것도아니라 우리의實踐이 多方面으로 展開됨을따라 우리의 周圍의現實은 더욱기피 더욱 切實하게 더욱 多方面으로 認識되며 따라理論도 기운찬 生의 理論이될수잇슬것이라고 生覺합니다。果然 우리의 現實의 生活에 새로운愛着을가지고 迫하야파고들어 다시피끌는 힘의理論, 實踐의理論을 차자내려고애쓰는것이 現代人, 더욱우리들의 志向하는바 中心課題라고나는生覺합니다。그리고 이러한理論이 다시금우리들의 要求、渴望하야마지아니하는바 指導原理가될수잇스리라고 나는生覺합니다。—完—

統營 —(詩)—

白石

舊馬山의 선창에선 조아하는사람이 울며날 이는배에 올라서오는 물길이반날
갓나는고당은 갓갓기도하다

바람맛도 짭짤한 물맛도짭짤한
전복에 해삼에 도미 가재미의 생선이조코
파래에 아개미에 호루기의 젓갈이조코

새벽녁의거리엔 쾅쾅 북이울고
밤새ㅅ것 바다에선 뿡뿡 배가울고

자다가도 일어나 바다로 가고십혼곳이다

집집이 아이만한 피도안간 대구를말리는곳
황화장사 령감이 일본말을 잘도하는곳
처녀들은 모두 漁場主한테 시집을가고십허한다는곳

山넘어로가는길 돌각담에 갸웃하는 처녀는 錦이라는이갓고
내가들은 馬山客主집의 어린딸은 蘭이라는이갓고

蘭이라는이는 明井골에산다든데
明井골은 山을넘어 柊栢나무푸르른 甘露가튼 물이숫는 明井샘이잇는 마을인데
샘터엔 오구작작 물긷는처녀며 새악시들 가운데 내가조아하는 그이가 잇슬것만갓고
내가조아하는 그이는 푸른가지붉게붉게 柊栢꽃 피는철엔 타관시집을 갈것만가튼데
긴토시끼고 큰머리언고 오불고불 넘엣거리로가는 女人은 平安道서오신듯한데 柊栢꼿피는철이 그언제요

녯 장수모신 낡은사당의 돌층계에 주저안저서 나는 이저녁 울듯울듯 閑山島바다에 뱃사공이되여가며
녕나즌집 담나즌집 마당만노픈집에서 열나흘달을업고 손방아만찟는 내사람을생각한다

—(南行詩抄)—

東洋訪問途上의 『솰랴핀』을 論함 (二)

咸大勳

三

이와가티 『고-리키-』와 『솰랴핀』은 苦難한 生活環境속에 存在도 업는 歌劇團員의 하나로서 藝術家의 첫발거름을 떼여노앗다 그리하야 五十年이 지난 오늘날 『고-리키-』는 싸베-트聯邦 最高의 文學者로 堂堂히 君臨하게 되고 『솰랴핀』은 名歌手로서 世界樂壇에 빗나게되엇다 一九二二年 母國을 떠난뒤 오늘날까지 十有四年을 世界를·舞臺로 放浪의 歌手가 되여 流浪의 旅路를 꼿업시 것고 잇스니 人生의 가는길을 그 누가 保障하랴? 『서고잇는 나무는 자리를잡고 잇지만 흘러가는木片은 꼿업시 흘러만간다』『고-리키-』가말한 이名句한마되가 이글을쓰는순간 얼는내머리에 떠오른다 아마도 人生의 一生을 通해보면 그럴듯도 하다 『솰랴핀』과『고-리키-』의 例를 보아도 이말이 眞理가 잇는게 아닐가?

그러면 그들이 어린時節 『카잔』에온 歌劇團이 드러다가 어떤길을 더듬어 오늘날에 이르럿든가? 이것을 展開식힘으로서 내가 쓰려는 이글의 本論이 시작될것이라고본다

歌劇團에서도 生活때문에 오래잇슬수가 업서『솰랴핀』은 父母를따러 裏海로 흐르는 볼가江을하려도가고 또 다시 『카잔』으로 도라와 寫字生노릇도 하다가 『아스트라한』地方으로 勞働을 떠나케 우연히『우우하』町에서 開幕한『사마르스키-』歌劇團에 展催이되여 月給二十留를 밧게되엿다 그리하여 그때 그의 기쁨은 갓이업섯는데 또한가지 그에게는 幸運이도라왓는이 그것이 바로 그가 열일곱되든 一八九〇年十二月十八日이엿다 바로그밤모뉴-쉬코『歌劇』하리카를 上演하게 되엇는데 突然히 主演의 한사람이 病으로 登場을할수업시되자 座主는『코-러스』員中에서 體格조흔『솰랴핀』을 한번代役식힐豫備로 練習을 식히엇다 그런데 豫想以上으로 그의成績은 훌륭하야 그밤으로 그는 一座의 主役의 末席을 차지하여 堂堂한 低音歌手로서 一般에게 認定되엇다 그것이 契機로 오페라以外 音樂會에도나가게되여 그때부터 漸次로 그는 樂壇人으로 登場하게되엇다

그後그는 우크라이나 小歌劇團에도 加入되여 볼가江沿岸으로 巡廻音樂도하고 그 後『바쿠』에서 一座와 손을 난우어 佛人의 喜歌劇團에 加入키도하엿는데 얼마하지안하 그一座가 解散이되자 그는다시 녯날의 放浪生活로 드러가게되여 獵夫도『아스트라한』과 『카잔』間을 往來하기도 하고 도 下로 陸人夫가되여 몬지나는 埠頭에서 勞働을 하기도하면서 빼저린 苦生을 겪기도하다가 一八九一年봄 겨우『캅호카-스』로 가게되엿다。그런데 거기서 多幸히 風光明媚한『지프리스』의 『크루자링호텔』의 一座에 加入을 햇섯는데 또 不幸은 닥처와그들이 離散되게되자 하는수업시 거기서 勞働者와 浮浪人들에게 어서 九旬一食의 悲慘한 生活을하고잇다가 겨우 그해여름後 高架索鐵道의 驛夫로서 僅僅安定이되엿다。그런데 그때 똑안인 녯날의벗『고-리키-』가 이鐵道의 鐵工일을하고 잇섯스니 이것은 넘우도 運命的인 人生의 邂逅가 아이잇슬가? 其實『고-리키-』는 그 카잔 菓子製造所에서 나와 이리저리 轉轉하든끄테 겨우 탑홈호驛『크루-브』驛 貨物滄庫의 夜間守直이를하면서 十二時間式의 勞働을하고 잇섯다。그 더구나 驛長집에서 물도깃고 장작을 나르고 食器를닷는等 그야말로 한時나마 수일수가 업섯다 그리든中 어느 세찬바람부는가을밤 貨物의 守衛를 하고 잇다가 뜻아닌 暴風에 나어린그는 軌道우에 쓰러지게되엿는데 그다음부터 二三個月間을 몹시알케되엿다 엄마後에 목이나키는햇스나 그후로속살라핀』과 競爭하든 그훌륭한『테너-』는 거치른 빠스가되여 잘 나오지도 안엇다 그리하여 그는 音樂을斷念하고 一方 地理歷史、天文學書籍만 히읽는一方 文學書籍을 읽게되엇다 그러나 그에 젠 生活苦때문에 또거기한자리에잇슬수가업서 一八九一年봄다시 一部는 徒步로 一部는 鐵道로 漂泊의 나그네가되엇다。그는 가는곳마다 人生을 研究하고 善惡에 對한 雜問題를 解決하려고 努力하면서『차리츠인』과『돈河』와 南露우크라이나를 돌며『벳사라비아』크리미아半島로 갓다가 다시 黑海의『쿠반』에 漂泊의旅路를 계속하엿다 그리다가 그해가을『캅호카-스』의『치프리스』로가서 鐵道工場의 鐵工이되엿든것이다 이리하야『고-리키-』는 비록 가튼고는안이지만 가튼鐵道에 從業員이되여『솰랴핀』과 勞働하게되엇스니 이들의 運命的放浪의邂逅는 넘우도 奇異한 因緣이라하지 안흘수업는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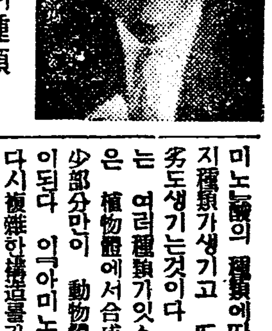
漢詩募集

題 春雪
押 風
限 一月末日
薄謝進呈

科學

榮養學解說 (二)

세부란스醫專醫化學研究室 李鶴松



B、榮養素의 種類

吾人이 常用하는 食品의 數는 約八十餘種(李鶴申教授의 研究한 食品數)으로 그外에 다시 救荒食을 合하면 實로 巨大한 數에 이르러 그形狀과 組成에 잇서서도 多種多樣이다 그러나 이것을 化學的으로 分類하면 蛋白質, 脂肪, 含水炭素, 無機鹽類『비타민』等의 五種이다。

蛋白質

蛋白質은 窒素를 含有하야 아미노酸으로 構成되여잇다。그럼으로 蛋白質에는 그를構成한『아미노酸』의 種類에따라서 여러가지種類가생기고 또榮養價值의優劣도생기는것이다『아미노』酸에는 여러種類가잇스나 그大部分은 植物體에서合成이되고 그外少部分만이 動物體內에서 合成이된다 이『아미노酸』이 合하여다시複雜한構造를가진 蛋白質을 合成하게되다 이것을 植物性蛋白質이라한다 이러케植物體內에서 合成된蛋白質은 動物이攝取하면 消化管內에서 分解되여『아미노』酸으로되여 血液안에吸收된다 이때에細胞는 이吸收된『아미노』酸을原料로하여 自己의 必要한 蛋白質을 合成한다 이것을 動物性蛋白質이라한다 우리 몸안에 잇는 蛋白質의原料인『아미노酸』은 大部分이 植物에서 直接或은 間接으로 온 것이것을 잘 알게되다 그럼으로 우리가 蛋白質을 우리體內에 옮기려면 반드시 植物性蛋白質을 直接或은 間接으로 攝取하는것은 事實이나 蛋白質의榮養價에 잇서서는 植物性蛋白質보다 動物性蛋白質이 優秀한點을 가지고잇다 前述한바와가티 蛋白質은『아미노』酸을 原料로하여 合成되는것인데 細胞의種類에따라 各各自己에게 必要한 蛋白質을 形成하는까닭에 類似한細胞는 類似한蛋白質을 形成한다 動物의組織細胞는 人體의그것과 類似한點이잇는關係로 人體細胞에所用될 蛋白質도 動物細胞의 蛋白質과 類似할것이다 그럼으로 動物性蛋白質은 人體細胞에所要되는 蛋白質을合成하는데必要한 原料의『아미노』酸을 植物性蛋白質에比하야 比較的만히供給할것이다 그런意味에서 動物性蛋白質은 植物性蛋白質에比하야 榮養上優秀한點이잇다 一例를들면 牛乳와人乳가운데는 比等한量의蛋白質을 가지고잇스나 乳兒를養育하는데는 人乳가牛乳보다조코 가튼人乳中에서도 乳母의젓(乳)보다도 生母의젓(乳)이조타

蛋白質은 우리가 食品으로하는 米、麥、玉蜀黍、粟、豆類等植物에包含되여잇고 獸肉、鳥肉、魚肉其他乳類、卵類等에包含되여잇다 一般으로 植物體보다 動物體에 만히包含되여잇다 蛋白質을 多量으로 攝取하려면 植物性食物을食用으로하는것보다 動物性食物을 食用하는것이 조흔것은 이까닭이다 蛋白質의榮養上任務는 主로 體細胞를 構成하는것이다 그럼으로 平時에도 體細胞는 不斷히 老衰更新됨으로 一定量의 蛋白質을 必要로하나 特히 細胞가 만히생길때에는 多量의 蛋白質을 要한다 例를들면 成長期의 人體는 蛋白質을 만히 要求한다。成長이라는것은 細胞의 增殖을 意味하는것임으로 그細胞를 增殖케하려면 平時에比하여 大量의 蛋白質을 要할것이다 그밧게病後 恢復期, 長期의 饑餓後等에도 細胞의 更新이만흠으로 多量의 蛋白質을 要한다。

新刊紹介

▲月刊野談 第十五號 京城府明治町三丁目八八 癸酉社出版部發行 振替京城二八二一番 定價二十錢 送料一錢

▲文學 創刊號 京城府大島町四〇ノ一 文學社發行 定價二十錢 總販賣所 京城府寬勳洞一二一 三文社書店發行 振替京城九七五六番

▲信仰生活 一月號 平壤府竹典里六八 信仰生活社發行 振替京城二〇〇九一番 定價十錢

曆

一月二十三日(木) 十二月(陰)己丑(小)廿九日
甲辰·火·奎·平
●小寒六日(陰十二日)
●大寒二十一日(陰二十七日)

今春 各學校試驗細規

(詳細는當校로直接問議하시오)

京城工業學校

▲募集人員 約九十名
▲申請期限 三月十日까지
▲試驗日字 自三月二十三日至三月二十四日
▲試驗場所 同校
▲試驗科目 國語、算術、理科

鏡城農業學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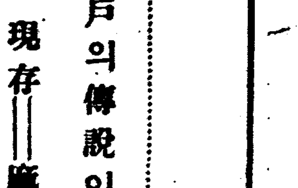
▲募集人員 約五十名
▲申請期限 二月末日까지
▲試驗日字 自三月十一日至三月十三日
▲試驗場所 同校
▲試驗科目 國語、算術、朝鮮語、理科

遞信局海員養成所

▲募集人員 四十名
▲申請期限 三月十日까지
▲試驗日字 三月下旬
▲試驗場所 京城遞信吏員養成所、木浦、元山의各海事出張所、平壤郵便局

好壽敎女子高普校

▲募集人員 約一百名
▲申請期限 三月四日까지
▲試驗日字 自三月五日至三月六日
▲試驗場所 同校
▲試驗科目 朝鮮語、國史、地理、理科、國語、算術



江戶의傳說이 現存 ― 麻布七不思議의하나! ― 事實로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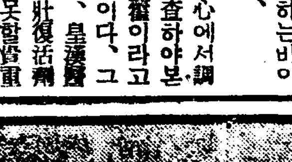
鶴鳥가老僧에게教示
衰弱挽回의靈草
寺院에希望者가雲集
다시幾層幾倍의
貴重藥草合釀의仙酒를……

市電 霞町停留所에갓가운 麻布區笄町의眞言宗長谷寺는 江戶의옛날부터有名한 巨刹인바、只今도가을에는、三枝九葉의藥草를施與하여드림으로遠方에서도、觀音像에參拜兼얻부러오는사람이만타。이에對하야興味잇는由來談이잇다、近來에와서、鄕土研究社에서發刊된『江戶의口碑와傳說』이라고하는書中에도記述되여잇다。

二百 年이나옛날、長谷寺庭園樹에鶴鳥가둥지를지은바、小僧이作亂을처서、鶴한雛가더욱弱하야、瀕死에이르럿슬지음에、親鶴鳥가어되서인지珍貴한草를갓다雛鳥에주드니、更生의元氣가나고、튼튼하게長成하야 큰鶴이되야갓다고한다、老僧住持은이상하여견딜수업섯다。

翌年 이되아서、풀씨가흘터진그뒷해、이상한풀이가득히繁長하엿다。老僧은試驗的으로그닙(葉)을煎飮하여보앗드니、퍽으나氣分이조코、明朗하야、날로身體가輕健하고顔面에잔주름이펴지고容貌까지젊어저서、年齡들이나近所의여러사람들이異常한일이라고、부러워하면서그풀을가저다煎飮하면、亦是效能이顯著하야、更少의

靈草 라고하는評判이나서 오는사람이雲集함으로서、가을철에限하야서만施與하기로한바、來로年年히、例年과가치、今日까지希望者가끈지안은것을보면、實際에效能잇는事實을證明하는바이다。그풀은무엇인가하면、



好奇 心에서調査하야본바、淫羊藿이라고하는藥草이다、그淫羊藿은、皇漢醫道에서强壯復活劑로서업지못할醫重藥인바、本草綱目에는精力增進의效能顯著하다고이記錄되야잇는바、이淫羊藿한가지만해도그러케조흔데、다시幾層幾倍나더하야、深山幽谷信州天龍峽素封舊家鹽澤家의家傳秘法에依하야、淫羊藿의外더욱幾多의稀貴한高山藥草를配合하야

海拔 三千尺高山地帶의天然自然의氣候風土에서醞釀된、푸근한香氣와

一次 服飮하면이칠수업는美味한深山仙酒가、即世上에서有名한養命酒인바、厥冷으로小便이자즌분、貧血命症의婦人、胃腸의活動의不足한분、活氣가업고感冒에자조걸니는분、衰弱하야回復力이缺如된분、精根이疲勞된분、모든點으로弱質인분、頭腦를過度히쓰는분、身體를過勞하는분等

貴重 한滋養强壯劑로서朝晩一杯式愛飮하면貴노이것처럼조흔것이업다고感心하야、한사람두사람評判이놉하가는것은、그根據가업는것이아니라、누구든지한번試飮하면놋치지안을수업다。試飮瓶은無料로送呈함。

⊙小瓶進呈

貴 重한深山仙酒인바芳香美로서가장服飮하기조흔것을紹介하기爲하야養命酒試飮用小瓶一本을無代로送呈함。東京澁谷區上通四丁目卅二番地養命酒本舖出張所宛으로藥書로注文하시라。

滋養强壯劑로……
◆胃腸衰弱한분
◆强腦强精의目的
◆神經衰弱잇는분
◆不眠숨갑분사람
◆呼吸器弱한사람
◆疲勞倦怠한사람
◆貧血冷病잇는분
◆産前産後의婦人
◆根氣薄弱한사람
◆虛弱體質가진분
◆病後恢復期 等等

信州伊那の谷名産 製法日米專賣特許
鹽澤家傳 養命酒
携帶用 一圓五十錢　大瓶 三圓　德用 四圓
⊙全國有名藥店、百貨店、食料品店에잇음
品切일때는便宜上東京出張所로注文하시옵
送料弊舖負擔代金引換은送料、實費밧습니다

注意 가짜가잇스니 專賣特許鹽澤家養命酒의文字에特히注意하시고사시옵

信州上伊那郡南向村大草
製造發賣元 養命酒本舖天龍舘
東京市澁谷區上通四丁目卅二番地
出張所 養命酒本舖出張所
電話靑山五三九八番 振替東京大八八五五番

000148

회충을구제하라

健康은 蛔虫驅除부터
健康과發育을阻害하는蛔虫을撲滅합시다
副作用업고、不快한感이업는世界的蛔虫藥『마구닌』을每朝一次服用하야蛔虫을驅除하고豫防합시다
마구닌錠 三〇錠 七五錢 一〇〇錠 一圓
마구닌제리 五個 一圓 十一圓
十錢마구닌錠 (大人一日量)
(可愛한蛔虫이란冊子進呈)
東京市小石川
株式會社 ……

十錢마구닌錠·마구닌제리 【專賣特許】
마구닌錠
KM-62

黑風 【282】

韓龍雲 作 金熊超 畫

참사랑 (十六)

『그러구 말구 서선생님가튼이인물이 쉬운가요 사람을 겪어보면 별의 별사람이 다 만하거든 소위 혁명당중에도 우수운 물건이 하도·하도 만하니까 나도 만히는 못 겪거 보앗지마는 그전에 팡둥에 잇슬때와 그후에 상해서도 잇섯고 지금은 무창에 잇서서 보통 혁명당원은 말할것도업고 수령계급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대강 지나 보앗는대 그중에 상당한이도 잇겟지만 말아닌 사람이 한둘이 아니여요 황강 가튼이는 특별한 인물이니까 말할것이 업스나 그도 관후하고 의지가 강할뿐이지 여러방면으로 고루기는 서선생님만못한것 갓고 이번에 미국서나오신 손중산 선생도 뵈엿는데 그는 우리나라 혁명계의 원로이니만치 말할것이 업스나 그도 대 인격자요 대리상가 이지마는 제일선에 나서서 투쟁하기로는 서선생님에게 한거름을 양보할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우수운 물건이 하도 만하니까……제법 정당한 혁명 의식을 가지고 국가나 민족을 위하야 활동하겟다는 사람은 백에 하나도 드물뿐 아니라, 글세 이것좀 보아요 양복벌이나 하다못해 구두켤네라도 어더가지게 되는때에는 와다 갓다 하면서 일을 보는체 하다가 그것이 업스면 그림자도 볼수가 업구만……그러구만 말면 또 다행이게 아! 이거 보아요 소위 혁명당 수령 급이라고 하는것들이 무슨 『그마한감정만 잇서도 반동적 행위를 하고 도명만 어더먹어 독스파이』노릇을 하니 기막히는 일이 아니오 이런말이 누가 드르면 거짓말 갓지마는 내가 직접본것만 해도 한두번이 아니니까 그야말로불가사문어 타인이지…』

『응 그러니 설마 스파이노릇 까지야 할나구?』하고 말을 계속하라 할적에 창순은 놀랍고 의심스런 눈으로 봉욱을 본다

『스파이노릇을 할나구가 다무예요 바로 황종씨의 수하에서 비서격으로 잇든자가 아…씨 창순씨도 남잇슬껄 팡둥에 잇슬때에 당수칠(唐秀七)이라는 웨 얼골이 뻔뻔하고 제말 재조잇다고 하면서 출낭거리고 다니든자 아니잇서 웨?』

『옹 그 얼골이 뻔뻔하니 기집이라면 회를 쳐 먹으라고 한다든 그자 말이로구면 그때 한번 봉욱이게도 연애를 걸더라고 말하지 안햇서 웨?』

『오라 하하하 바로 그자여 그자가 황선생의 비서격으로 잇스니까 모든 비밀을 알것이 아니어? 그런대 그자가 상해 잇슬때에 철량(鐵良)이 철량이 말이야워 철량이라고 벼슬도 만히해먹고 그런자가 아니 잇서워?』

『옹 잇지 철량이라고 아주고약한자 그래 철량이가 어찌단 말이야?』

『철량이가 어쩐것이 아니라 그닭가기 말이야 그 닭가튼놈이 철량에게 돈 삼천원을 바더먹고 혁명당의 중요한 비밀서류를 모다 갓다 주엇서요』

『원 저룰 어쩌나 저런 죽일놈 그래 어떠케 되얏서』

『그래 황선생이 부들녀섯지오 그러나 이상하게도 부들린다는것이 만국조계(萬國租界)에서 부들려서요 그러나 실로말하자면 만국조계도 아니지 만국조계 레밧기닌까 그러나 만국조계에서 정치범을 잡엇다고 미국공사가 떠들고 이러나서 도로 빼아서갓지요 그때일흠 생각하면 지금도 아술아술하지 그러지 안혓스면 큰일날뻔 하얏지 그러니 장황한 이약이를 다할수는 업고 그러한 위인도잇다는 말이오 그자로 말하야도 수령급이라고할수가 잇는자가 아니오 그런대 돈삼천원에 팔녀서 그따위 개가튼 행동을 하니 그것이 곳 돈삼천원에 민족을 따라먹는 것이 어든 그러니까 서선생님 가튼이가 하로 밧비 나가서야 된다는 말이야』

하고 번민이 나는듯이 한숨을후!』하고 내쉬다

百五十字 써-비스 讀者社交室

▲當年二十의男兒로 일즉시골서 小學을거처 農業實習所二年을맛치고 뜻한바잇서 數個月前에上京하야 배움의길을찻고저햇든바 오자마자 酷寒은 襲來하고 求職은容易하되지안혀 二三友와함께 一日 비지죽한끼가어려워 不得已貴社學藝欄의 援助를 懇請하오니 適合한일자리를주시옵소서 十八億中에 저가튼것하나쯤이야 除名되기로엇가올것업겟스나 罪업는갓치잇는분들이안락갓사오니 아는것은別로업스나 英文字나 겨우解得하옵고 일은 貴賤이나 給料多寡는 莫論하고 머리까지쓸수잇는 肉體勞働도조습니다 身分만은安心하시옵소서 (府外大峴里 市外求職生)

▲一般投筆客의 渴望하든 朝鮮紙上살롱開放을 衷心으로慶賀하오며 左記를至急指導하여주십시오 京城市內에 普通文官試驗志願者의 養成機關이 몃곳이나잇습니까? (1)잇다면 優秀處는何校? (2)授業料와 其他費用一切幾何 (3)宿泊料幾何 (4)其他擧備에參考資料等 (一志願生)

▲生이洋服裁斷學을 硏究코저하오니 初步者로도 能解할만한裁斷書名과 販賣하는書店의 住所를下敎하야주시오(天安一讀者)

▲本人이피아노敎授를밧고저하오니 敎授所及氏名과 敎授料는月幾何오며 一週間幾回식敎授하올난지 下敎하심을 伏望하옵나이다 追朴慶浩氏朴實淑氏金元福氏右諸氏께서도 個人敎授를하시는지 알고저합니다 (宮井洞四二 成基石)

舊正初에한목볼『푸로』 京城市內各常設館……(1)

朝鮮劇場 유나이테드映畫 曲馬團

월레이스·베어리 아돌프·맨쥬ㅣ 共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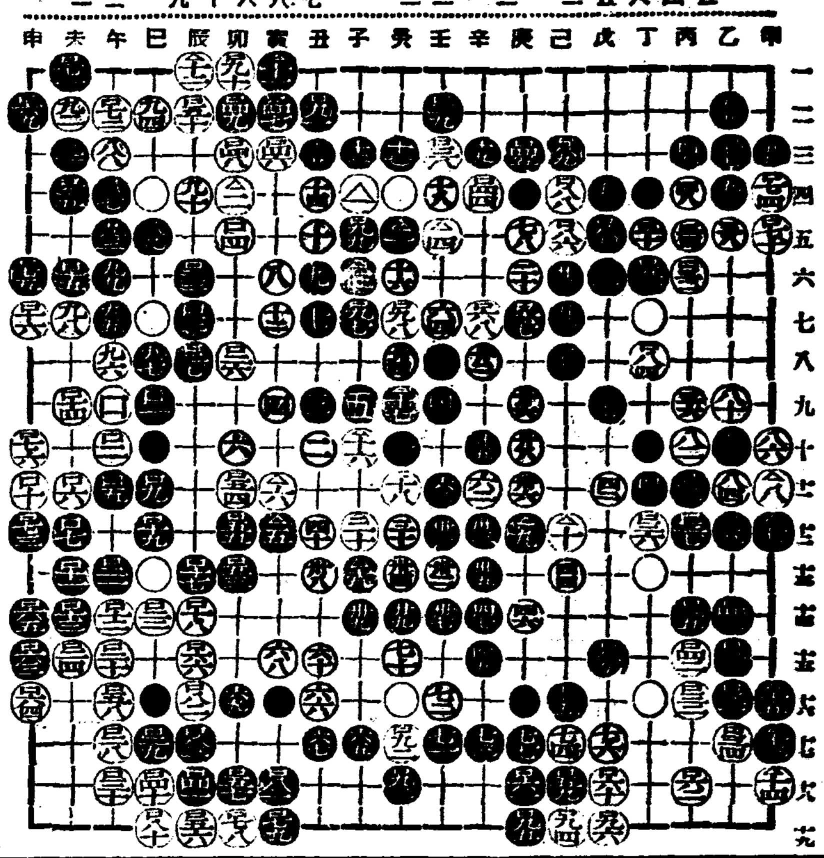
지금으로부터 約百年前사람米國의有名한 大興行師『P·T·바ㅣ남』의一生記를 脚色하야 映畫化한것이다 當時『바ㅣ남』의興行物로가장 人氣가 이섯든것은三頭蛙 人魚 世界一의巨象等인데 그는다시百六十一歲의 黑人老婆(이老婆는워싱톤이櫻木을 독기로찍는것을보앗다한다)를百弗에사서各地로 巡業하다가『뉴ㅣ욕』에가서는 最初一週間에 一千五百弗을 버러다고하니 그때로보아서는 굉장한돈이 이興行價値百%의老婆가 죽은後 醫師가 解剖硏究해본즉 암만해도 사람이아니엇다고한다……대개이러한 逸話들을 엮어매어 純娛樂趣味本位로 맨든作品이니 滋味잇슬것은事實.

『스틸』은 이映畫의 한場面

本社主催 圍棋對局譜 —13—

白 [illegible]文 黑 丁奎春

○一一 癸의五 ○一二 卯의四 ●一三 子의六 ○一四 壬의五 ●一五 寅의十二 ○一六 寅의十一 ●一七 甲의十二 ○一八 甲의十一 ●一九 庚의十二 ○二〇 己의十二 ●二一 寅의一 ○二二 辰의一 ●二三 甲의十七 ○二四 甲의十八 ●二五 甲의十六 ●二六 子의十 ●二七 癸의九 ○二八 癸의十一 ●二九 子의十三 ○三〇 子의十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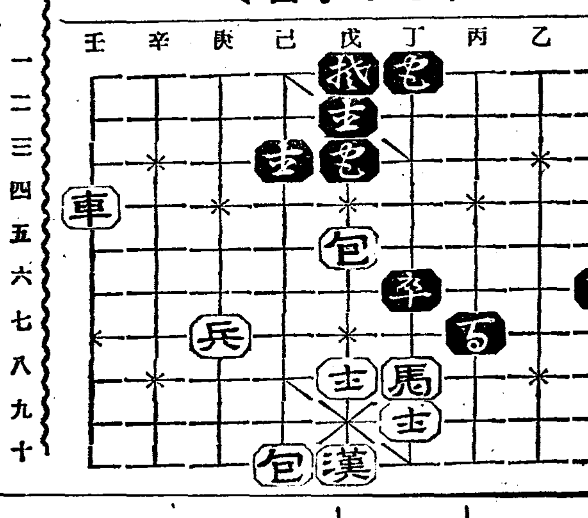


◆對局者談 黑 己의五난 眩惑點으로 看過되다 白이 寅의四五 黑 二點을 不取하면 三端損이아닌가 黑 寅의十二 子의十三 白 寅의十一 子의十二 本是 超越手法이라 少無差錯하니· 誰能過行이리요 饒舌은 止於斯하노라

本社主催 將棋名手對局譜 (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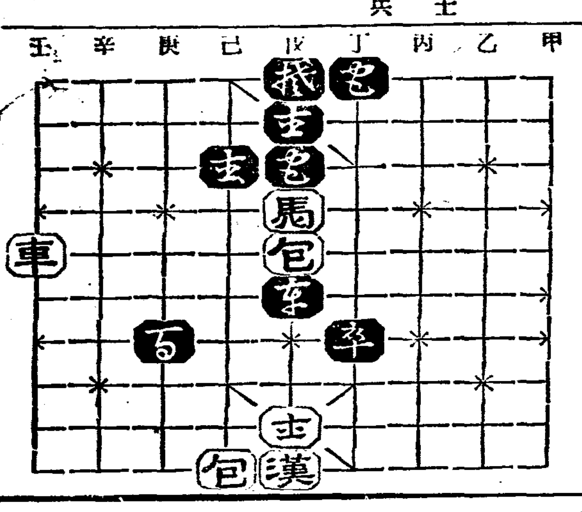
先手一級 李在鳳 漢 丁奎東

◀圖手十七▶



◀圖手十八▶

丙七包—戊六打士 丁九士—戊九 戊八包—庚七打兵 丁八馬—己七 丁六包—丁七 己七馬—庚五 甲六卒—庚六 庚五馬—戊四 庚六卒—戊六 壬四車—壬五



피여날듯한自然美!

レート白粉 水粉

레—도

憧憬의個性美

自己도홀낭반할뜻한 어엽분花容! 잘먹고잘퍼고、잘발니여서이러케도高尙하고優雅하다!

レート白粉
レート水白粉
レート固煉白粉
レート煉白粉

レートクレーム本舖 東京·平尾贊平商店

人生의살맛은 オセロ(오세로)에서!

はれやか(하레야가)는爽快의源泉!!

頭痛、眩氣 宿醉、船車멀미

[illegible] .30 [illegible] .05

·30 ·50 1·00

各地藥店에잇슴

十人이면十人의살에다맛는

牛乳石鹼

갓난애의살결을직히고

婦人의美肌를곱게하고

面刀後에도습니다

·刺戟性이업고
·살안것칠게하고
·분이잘먹는

이런特長이여러분을『牛乳石鹼』愛用者로맨든原因이겟지요!

大阪·共進舍石鹼株式會社

長生不老도 陽氣가 조아야! 大業成就도 陽氣가 조아야! 陽虛한 男子는 生不如死다! 速히 이—樺太廳官營採取品인

眞品 海狗腎 을服用하라

本品은補精腎氣强壯에神秘的靈效가有한바北洋寒帶地方의産物을樺太廳에서官營으로捕獲하야同廳水産物檢査所에서嚴正檢査證明한世界的高貴의眞品이라一服하시면그神效를能히料量할것이외다 (求服을願하시는분은說明書請求次第곳進呈함)

發賣元 合資會社 大洋貿易社 釜山府草梁町三貳二番地ノ三 電話長一二一九番 振替釜山七九二二番

一月二十二日부터短期二日間大公開 舊忘年週間 每日二回興行正午十二時부터晝間二回六時까지繼續映夜間七時始映 大衆料金 階上十五錢階下十錢 新興키네마社寬壽郞프로덕金特作品 山本松男監督 時代劇 丸橋忠彌 嵐寬壽郞一人二役主演 淡路千夜子 寬壽郞가千夜子와颯爽한二役의演技를發揮한巨篇! 慶安太平記의解決篇人間情緖와劍劇篇! 와ㅣ나프라ㅣ사ㅣ스社超特作全發聲版 알후렛드·E·구링氏監督 空中活劇 落下傘 (파라슈ㅣ트)

最初의파라슈ㅣ트映畫! 小다그라스후에방그스氏主演 우는飛行機에서落下傘을등에지고大空中과同時에落下하야狂亂하는 超新妙技의名篇! 유니버살社特作品 유우잉게류氏監督 文藝劇 復活 루빠베렛孃 존포ㅣ루스氏主演 舊正月푸로 新興月の下に 코럼비아警官中十七號 同 空中스파ㅣ大王

여러분의 鍾路四丁目 電光一七五 第一劇場

當一月二十日브터大公開 모노구람映畫會社作全發聲日本版 魔海의王者

알만드세파氏監督 사리오니ㅣ己主演 海底에潛水하야海綿을採取하는것으로業을삼는漁船隊의苦心慘憺한生活에裡面! 이곳에서일어나는愛慾에爭奪戰! 보고보고또보아도실치안흔名篇

東洋映畫社第一回作品朝鮮日報連載小說 僧房悲曲 李慶善 金蓮實 尹逢春以外名星總出演 富者의아들李錫秀는明淑을사랑하엿스나女流音樂家恩淑으로말미암아意外에失戀을當하여自殺을도모하려든곳으로부터이야기에실마리는풀이러한다明淑에可憐한前道가어찌나될가?

大都映畫社超特作時代劇 風流千石やくざ 阿部九州男月宮乙女主演

貫鐵洞 電光三九五 優美館

當る廿二日特別大公開 突如舊正映畫街に捧ぐる待望の東西三大名畫併立大封切!! 新興キネマ提供 千惠プロ本年度超豪級作 原作 監督山上伊太郞 オール·サウンド版 神月風流陣敗題 魔風一騎 片岡千惠藏主演 久松三津枝·瀨川路三郞·荒木忍·香川良介·助演 メトロ超豪級怪奇大衆篇 EJマニワクス氏製作 ドッドブロウニング氏監督 ジエーム·ウスオン·ホウ氏撮影 古城の妖鬼 ライオネル·バリモーア主演 エリザベース·アラン孃 ジーン ハーショルト氏助演 新興キネマ東京撮影所特作 都新聞連載小說 原作 戶川貞雄先生 監督 田中重雄 撮影 二宮義曉 オール、サウンド版 女人祭 伏見伏子、山縣直代、江川なほみ、河津淸三郞、主演 滿都熱讀全女性間にて問題となりし、都新聞讀者一年有半、熱狂の名小說の映畫化!

永樂町 電本三五二 中央館

咸南道內小作爭議 新春劈頭부터盛行
今年드러벌서六件의調停申請
모다作權移動에基因

【咸興】 일시잠잠하고잇던 함남도소작쟁의도 신춘(新春)을당하여서는 아연재성하여금년에들어 함흥법원에는 벌서 네건 이나 조정신청이 접수되엿스며 지난 이십일일도 다시이건(二件)이나 신청이잇섯는데 전부 지주가무리폭하게 작권을 박탈한것이 원인이되다이제그내용을보면 안변군 학성면 문내리(安邊郡鶴城面門內里)김중근(金仲根)은 망부인 황진우(黃鎭宇)의 생존시부터 동리답이천오백여평의 소작은 지주인 동군 안도면비산리(安道面比山里) 김모(金某)로부터 팔년부터 계약을 체결하고 팔、구량년간 소작하여 소작료기타 일체부담을 어김업이 하엿는데 구년이월 황진우(黃鎭宇)가 사망하자 동년지주가 작권을 박탈하라고 엄명함으로작년정월이십륙일에 함흥법원에조정신청을 하엿던바 다시소작을 계속하기로 화해되여 십년도는 그냥 소작하엿든바 지난십이월에 다시 지주김모가 무리하게 금년부터 소작권을 반환하라고 엄명하여 수진의 간원도 듯지안는다는것이다 안변군안도면비산리(安道面比山里) 윤영기(尹永基)는 동리답 일천이백여평의소작을 그지주원산부(元山府)서모(徐某)와계약을하고소작하여오든바 작년사월 동리안모(安某)라는사람이 해로지를 서모에게 매수하게되자 즉시 소작권을 밧치라고 함으로 여러가지로 사정을한결과 작년에는 그냥소작하여왓스나 금년일월십일부터 다시소작권을 반환하라고 엄명함으로 최초계약대로 금후이개년동안 계속소작해달라는것등이라한다

冬旱에酷寒繼續 江西地方水飢饉
그중에도江西、岐陽等地가極甚
數十年初有의奇現像

【江西】 금년에는 겨울이 닥처서도 한번도 눈이나리지 안코 수십년래처음보는 혹한(酷寒)만 계속하야 평남강서지방에는 음료수가 부족되여 크게소동중인데 그중에도 더욱 심한곳은 가양、강서、사천(岐陽江西沙川)등지로써 이대로 이주일만 더계속한다면 음료수는 도저히 구할도리가 업스리라하야 방금각지에서는 인심이 극히 불안중에잇다한다

會館貸與問題로 一般非難藉藉

【山淸】 경남산청 청년회관은거금십삼년전에 당시 청년제씨의 열성노력으로써 다수유지인사의 긔부금을모와 공비삼천오백여원을 드려서 건축한것으로 이래 각방면의 공회에 리용해왓다는바 작년중 당지 공직자이삼인이 사방(砂防)사업 사무소에제공한다는 리유로 청년회와는하등의협의도업시 약십년간 무료대부를 승락한결과 회관압뜰에는 사방용차고까지 짓게하엿다는데그동긔와 목적의 시비는별문제로하고 산청사회의 귀중하고또필요한 공유긔관을 몃몃사람이 독단적의사로써 대부운운함은 실로 긔괴부당한 일이라하야 일반의 비난이 비등하다고 한다

救濟金品모아 貧民에게配給

【甕津】 옹진 년말년시를 당하야 황해도 옹진경찰서(甕津警察署)에서는 서원이 출동하야 지방유지로부터 빈민구제금품을 모아가지고 관하에 산재한 빈민들에게 량미(糧米)를 배급한다 함은 기보한바어니와 동서에서는 지방유지사실사인으로부터 삼백오원삼십전의 빈민구제금품을 모아가지고 지난간 음이십일일에 경찰서직할내에 거주하는 빈민륙십일호、인구이백삼십사인에대하야 어른은 한사람압헤는 백미일두(아해는 약반분의비례)와 청어(鯖魚)다섯개식을 동서구내에서 각각 배급하엿다 한다

山邑鎭城大舘에서 中學講習院期成
新年劈頭의快報

【鎭城】 매년향학열이 팽창되는 이때 교통이 극불편하고 교육긔관불비의 산읍에서 신년벽두에 쾌보가 들린다 삭주군 외남면 대관동(朔州郡外南面大舘洞) 유지 김형필 김진성、 차상일등 제씨는 중등교육긔관 설립필요의 숙안을 실현식히려는 제일보로 지난 오일 신년의가장 장쾌한 계획인 중학강습원 설립기성회를 대관청년회관에서 다수의 지방유지 집합리에 개최하고 설립에관한 중요한 사항을 협의하엿다는바 즉석에서 거액의 긔부금이 거출되엿스며 느저도 오는사월초

◇…大邱大火災의慘跡

專賣出張所所有 長壽丸行方不明
乘組員六員生死念慮

【仁川】 경성전매국인천출장소의 소속기선 장수환(長壽丸)(九拾t)은 승조원 륙명을태우고 지난 십팔일 인천항을떠나 부근연해각지에 출장중 경기도연해에서 발동기의 고장을이르키엿는지 행방불명이되고 말엇다 그리하야 전내선으로 수사중이나 이십일일까지 행방을 알지 못하야 국원일동과 승조원가족들은 눈물속에지내며 각방으로 수사중이라한다

鯀航山에大山火
烈風에乘勢한火焰、鎭火無望
燒失面積二百餘町步

【咸安】 여항산(餘航山)은 경남 함안、창원(咸安昌原)량군의 경계에잇는 경남굴지의 고산으로 여항산이라면 누구나 물론하고 고산으로 알게된다 지난십삼일 오후세시경에 불이 일어난것을 발견하고 여항주재소원 지시하에 여항면민 총동원으로 진화에 노력하엿스나 맹렬한 바람을 따라 일어나는 화렴은도저히 진화의 희망이 막연한바 발화원인은 알수업스나 노동자의 실화가 아닌가하고 조사중이며 손해액도 아직 알수업는데 지난십팔일 오후한시까지 발견된 피해면적은 함안군여항면 주동 평암 내곡 여양(主東、平岩、內谷、餘陽)에 약이백정보、창원군 진북면 영학리(鎭北面永鶴里)에 약일백정보라는데 일반은 미래를 우려중이라한다

募集定員卄名에 志願者但四名
伊川農蠶校의現況

【伊川】 향학열을 부르지지는오늘에잇서 도리혀반대로 이천공립농잠학교는 지난십오일에 시업식(始業式)임에 불구하고 모집정원 이십명중 단네명의 지원자가 잇슬뿐임으로 시업식을 하지못하고 각군으로 직원이출장하야 학생을 모집중이라는데 이제 그원인을 조사한바에의하면 현재 이개년으로 반다시 귀농운동(歸農運動)에 철저한힘을 다하야 졸업생의 방면을보면 모다 농사를하게됨으로 취직문제는 절대로 학교의취지가 아님으로 이런간 농잠학교에서 공부를하엿댓자 별로신통치 아니함으로 그와가티 지원자가 적다는데 막대한 경비를 드려가면서 공부답지못하게 할바에는 차라리 집에서 농사를 하는것만 갓지못하다는 주장으로 학교경영 일대난관에 당면한바 하루속히 농사교육의 완전을 긔하야 농업학교로 승격하라는 일반군민의 바라는바이라고 한다

太田會頭의辭任受理
仁川商工會議所

【仁川】 인천상공회의소회두 사임문제로 인하야 지난십팔일오후이시부터 동회의실에서 총회를 개최하얏든바 의제에 들어가기전에 금정성삼(今井省三)의원으로부터 사십여조의 질문으로 의사진행은 가장난관을 보이엿다 이에김종섭(金鍾燮)의원으로부터 동질문에 대한것은의제와 별개문제임으로 추후로미루고 즉시의제를 진행시기자하야 장시간의 론전이 잇슬뿐아니라 금정의원으로부터 본총회는 회두의소집이아니요 부회두의소집이라 절대로무효라는 주장으로 공긔는자못험악하얏스나 오후칠시 한영근(韓泳根)두의원의 발의가 잇슴으로 회두사임문제는 수리키로 가결되자 금정의원은 무효한총회에서는 잇슬수업다하야 퇴석까지하얏다 보선의원은 조속선거키로하고 회두선거는 특별의원사씨에게 일임하야 회두후보자를 내이게한후 이십사일총회를 개최하야 표결(表決)키로되엿다한다

길가다졸엇다고 十一歲少女를蹴殺
所管木浦署에서加害者取調
務安郡下昔實里에서

【光州】 지난 십오일무안군 현경면 석실리귀봉(務安郡玄慶面昔實里歸鳳)(二〇)은 동군 량운면 전춘덕(同郡梁雲面全春德)(一一)에게 어린애를 업피고 리마을에 다리고갓섯는데 그때 춘덕은 어린애를 업고 가는도중에 졸앗다는리유로 집에도라가서 춘덕의 허리를 발로차는등 무수히란타하여 크게신고하든바 드되여 십팔일에 절명하고말엇다는대 소관목포서에서는 가해자를 검거하야 방금상해치사죄(傷害致死罪)로 엄중취조하는바 한편시체는 해부에부치엿다한다

寄宿舍全燒
衆野公立普校

【衆野】 지난십륙일 오후아홉시반부터 당지보통학교긔숙사내에서 출화하여 맹렬한불길은 것잡을수업시 전긔긔숙사를 전소하엿고 부근동민급소방대의 활동으로 겨우열한시반경에 진화하엿는데 출화원인은 현금조사중이라하며 손해는 약륙백원가량이라고한다

本報讀者優待【草溪】

합천군 초계문화사진관(文化寫眞舘)에서는 어느면화장긔념과 본보초계지국(草溪支局)독자 제씨께한하야 지난이십구일부터 오는이월말일까지 약오주일간 사진대를 륙할인촬영을 해드리기로 되얏다고하오니 독자제씨께서는 이기회를 일치말고 만히 리용하여 주심을 바란다고한다

□里에凍死屍【□□】

지난부구입오전세시경되여 당지농……리화강등 큰길가에 사람이잇섯는데 기량되여보이고 수업스며 모양어 인듯한데 시체는 곳에매장하엿다한다

簡易學校設立費로 一千五百圓喜捨
唐津金錫達氏篤擧

【唐津】 충남 당진군석문면(唐津郡石門面)에 간이학교(簡易學校) 설치문제는 오래동안 일반의 숙망이엿스나 경비문제로 우금것 실현치못하야 유감중이던바 본면 삼봉리(三峰里)에 거주하는 김석달(金錫達)씨는 아동교육에 부심하고잇던중 금번 긔성회가 탄생함을 따라 이운동을 적극적으로 응원하야 사재일천오백원을 교사건축비로회사하여 이운동에 만흔도움이되여 금춘에는 실현을보게되엿스므로 일반의칭송이 놉다한다 (사진은김석달씨)

棍棒든强盜出現 行人을襲擊奪金
定州郡下"먹고개"에서

【古邑】 구세밑을 압두고 강도절도등 범죄사건이 빈발하는이때 정주군마산면신장동(定州郡馬山面新長洞)에 거주하는 농민 김주남(金周南)(二〇)이란이가 고읍시장(古邑市場)에 나가서 소를 파라가지고 오는길에 먹고개라는 산중에 다다르자 돌연히 괴한한명이 나타나서 곤봉으로 두부를 난타하야 혼도식힌후 현금이백오십칠원을 탈취하여가지고 달어낫는데 동행하든 김주흡(金周洽)이가 이광경을 보고 동리로 나려가 구호를 요구하야 동민들이 불을밝고 올라가본즉 김주남은 벌서 종적을 감추어버리고 피해자는 정신이혼도되여 고읍 중앙의원(古邑中央醫院)에서 응급치료를 밧고잇다는바 생명에는 별반 관계가 업스리라 한다 이 급보를 접한 갈산주재소(葛山駐在所)에서는 정주본서의 응원을어더 엄중한 경계선을노리고 엄탐중이나 범인은아직오리무중에 잠겨잇다고한다

陝川邑內에火災

【陝川】 지난 십구일 오전십일시 십오분경에 경남 합천읍내(陝川邑內)서춘심(徐春心)의집에서 출화하야 때마참 부는바람에 불길은 것잡을사이업시 일호일동(一戶一棟)을전소한후 동오십오분에 진화하엿는데 원인은 아이들 불작난에서 낫것갓다는데 부근에는 큰건물들이만흔관계로 일시는 대혼잡을 이루엇다고한다

擲柶大會一束

【大田】 본보대전지국에서는 전대전 남녀현상 척사대회(全大田男女懸賞擲柶大會)를 오는이십륙일(陰正月三日) 오전열시부터 본보대전지국에서 성대히 거행하리라는바 당일에는 기생다수의 조흥도잇서서 가장 흥미잇슬것을 예상한다는바 열성노리에 해로운놀음을 재미잇게 보내주기를 바라는데 상품과상비는 다음과갓다고 한다。
◇賞金 五十錢
◇賞品 一等 廣木一疋

二等 掛鐘時計一個 三等 東洋木一疋 四等 手巾一打 五等 洋襪半打

【揷橋】 충남삽교에서는 음정초를리용하야 례년과가티 리괴영 리태영 장병선(吾市吾 金恩興 李起英 李泰永 張炳元)등 상점(商店)의 주최로 본보삽교지국 후원하에 동역전광흥려관(廣興旅舘)에서 개최하리라는바 만히 참가하야주기를 바라며 회비는 매인일식을 증수하고 당일우승자에게는 다음과가튼 상품을 수여하리라고한다
一等 黃牛一頭 二等 高級오빠一枚 三等 白米一叭 四等 豚一頭 五等 石油一桶 六等 內衣一着

【南陽】 음력설도 이제 압호로 며칠남지안한바 다닥처오는 음력명절을 즐겁게마지하기위하야 시민급 상인을 망라한 남양상공회(南陽商工會) 주최와 본보지국후원으로 당지 중앙동 평양냉면 집에서 정월초닷새날을 택하야 한자리에 모혀서 척사대회를 개최하리라 한다

【牙山】 충남온양온천에서는 오는이십팔、구일 음정월오、륙량일에 온천리소방조주최와 본보아산지국및 온천리각유명상점의후원으로 온천극장천락관(泉樂舘)에서 전조선현상척사대회를 개최하기로된바 사해척사동호가제씨는 만히참가하심을 바라는바이며 상품은아래와갓다한다
一等 高級自轉車一臺 二等 朝鮮二層衣欌一臺 蓄音機一臺 三等 靑銅火爐 洗面器 各一 四等 三A腕木一疋 五等 高級卓時計一個 六等 鑞器製食器、大接一組

舊年末警戒로 一齊檢擧

【平壤】 구년말을압두고 평양부내에는 불량자가 발호하여 빈민부민의 고통이 만흘터이므로 평양서에서는 십구일밤중에 서원을 비상소집하여가지고 부내전 구역에서 일제검거를 한결과 오십사명을 검거하고 목하 취조중인데 그중에는 흉악한범죄자도 업지안타고한다

撫順 朝滿人無料治療週間
▲時日 自二月十日 至二月十六日
▲場所 大官屯濟衆醫院 電話二九一四番
◇主催 朝鮮日報社撫順支局
◇後援 濟衆醫院

◇訂正 昭和十一年 一月十二日付 本報 第五千二百五十八號 朝刊三面에 揭載한 平山郡副業者의 記事中 平山郡에 十年前 倉庫에 山積하얏다함은 誤報이기 玆에訂正함

延安 新春懸賞擲柶大會
▲時日 二月一日(陰正月九日)
▲場所 永昇舘
◇主催 朝鮮日報延安支局
◇後援 鮮一印刷所

扶餘 新春懸賞擲柶大會
▲時日 正月初五日ㅡ六日
▲場所 扶餘邑市場
◇主催 朝鮮日報扶餘支局
◇後援 百濟洋靴店 大昌雜貨店

居昌 第三回居昌擲柶大會
▲時日 一月二十六日(舊正月三日)
▲場所 未定
◇主催 本報居昌支局

牙山 新春懸賞擲柶大會
▲時日 舊正月五、六兩日(午前十時부터)
▲場所 溫陽溫泉劇場(泉樂舘)
◇主催 溫泉里消防組
◇後援 朝鮮日報牙山支局 溫泉里有名商店一同

大田 全大田男女懸賞擲柶大會
▲時日 陰正月三日
▲場所 朝鮮日報大田支局
◇主催 朝鮮日報大田支局

瑞山 全瑞山擲柶大會
▲時日 一月二十六日(陰正月初三日)午前十一時
▲場所 瑞山邑內 瑞山俱樂部
◇主催 朝鮮日報社瑞山支局
◇後援 瑞山樂隊、瑞山商業家及有志靑年

永川 新春擲柶大會
▲日時 舊正月初二日午後二時
▲場所 東山亭
◇主催 朝鮮日報社永川支局

揷橋 新春懸賞擲柶大會
▲場所 揷橋驛前廣興旅館
▲日時 陰正月七日午前九時
◇主催 有志一同
◇後援 朝鮮日報社揷橋支局

異次頓의死 【78】
李光洙 作 金奎澤 畵

「나올어나 살아라」
하는 국사의 말은 대단히 힘이 잇섯다。이 단순한 말 한마디에 이차돈의 가슴을 설레게하던 번뇌는 다 슬어지는것가탓다。
이차돈은 버게 들어가서 나물을 씨서서 소테 너코 불을 지폇다。삼년 동안 아침 저녁으로 정들인 버키다。아궁이 속에서 뿌지직 딱딱하고 타는 싸리갑이、그 끄테 뽀지직뽀지직 끌는 기름、그 소리와 그 향긔、그것이 다 삼년간 날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이차돈의 동무가 되고 말 벗이 되엇던것이엇다。빨건 불ㅅ길이 활활 타오르다가는 탈것이 다 타고는 뿌연 재만 남는것을 볼 때마다 이차돈은 제행무상을 생각하고 일체법공을 생각하던것이다。제 몸을 싸리갑이에 비기고 불을 번뇌에 비기는것이엇다。그 불ㅅ길、그 톡탁거리던 소리、그것은 순식간에 다 술어지는것이아니냐。
「모든것은 덧업고 모든것은 헛되다。중생은 이 덧업고 헛된것을 탐내어 성내고 싸호고 그것버하고 하는고냐。잠시뒤면 다 술어질것을、잠시뒤면 다 한줌흙이 될것을、그흙조차도 잠시뒤면 술어질것을」
이차돈은 불을 때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엿다。
「나고 늙고 알코 죽고──이줄을 한업시 되풀이 하는 중생」
하고 이차돈은 이러케도 생각하여본다。
「아까 구름ㅅ속에서 재재거리던 종달새도 벌서 죽엇는지도 모른다」
이러케도 생각하여본다。
「가슴에 타는 번뇌를 못이기여서 한울로 오르락내리락 암놈을 부르는 종달새」
이러케도 생각하여본다。
「달님을 그리워하는 내 마음이나 암놈을 부르는 종달새의 마음이나 다 마찬가지 마음이다」
이러케도 생각하여본다。
「알수업는것은 사람의 정 그중에도 사랑하고 그리워 하는 정」
하고 이차돈은 달님과 늙은 조부와 어머니를 생각하여본다。
「그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어엿베녀거라」
하던 시님의 말슴을 생각하여본다。
이차돈은 삼년ㅅ동안 수도에 과연 번뇌를 떼어버린것을 깨닫앗다。권세나 명예나 재물이나 그러한것은 이제는 이차돈에게는 재와 갓고 흙과 갓탓다。부드러운 옷、맛나는 음식ㅡ 이것도인제는 이차돈에게는 아모것도 아니엇다。세상ㅅ사람이 저를 알아주고 안 알아주는것、그러한것은 다 꿈보다도 허된것이엇다。노닥노닥한 누더기를 입는것도 그저 심상하엿다。쓴나물 쓴 된장에 밥한 덩어리──이것이면 족하엿다。이차돈이가 평소에 자랑하던 아름다운 풍채와 뛰어난 긔운과 날램──이러한것도 쓰는 나무ㅅ닙、굴르는 터ㅅ검불과 다름이 업섯다。서리오기 전 날 풀닙사귀나 다를 업는 몸둥이와 그 풀닙사귀를 매친 이슬과가튼 영화나 행락이니 하는것은 이차돈에게는 벌서 버서버린 허울이엇다。어드서 언제 버서버렷는지도 모룩、그런것이 제게 잇던것 조차 이저버린、그러한 넷 껍질이엇다。몸의 목숨조차도 이차돈에게는 한울에 선 무지개와 가탓다。잇는동안 잇다고보지마는 술어지기로니 아까울것도업섯다。
이차돈은 이 한울과 땅、그속에 잇는 만물이 다 물에 쓴 풀이오 잠시 번적하는 번개요 꿈이오 허개비오、실상은 령 부여서 아모것도 업는줄을 생각한다。아모것도 이차돈의 마음을 움지길것은 업섯다。
그러치마는 오직 하나、마치 다 사윈 재ㅅ가운데 반작거리는 좁ㅅ동모양으로 남은 번뇌의 씨가 잇섯다。그것은 달님에 대한 그리움이엇다。
「시님、소승 오늘ㅅ밤도 달님이 그립수」
하고 이차돈은 몃번이나 시님에게 참회를 하엿다。그러면 시님은、
「오 몸둥이 잇는 동안 밥먹은지 오래면 배가고프나랑、사내가 젊은 동안 젊은 계집을 보면 그리우나랑。그러치마는 사내라 계집이라하는 차별을 버리고 고기ㅅ간에 매달아 놓은 고기ㅅ덩어리로 볼 때에 그 번뇌가 술어지나니랑 실상 네나 달님이나 다 인연이 흙으로 빗저노흔 허신이어둥 거긔숙지길고 애착하지를 말면 고만이야」
하고 훈계하엿다。

000149

賀正

新京
滿洲國京圖線蛟河驛前
運送營業 海陸物產 委託賣買
㊎ 丸金運送部
代表 金武漢
電話 六八番
電略(キン)又ハ(〇キン)

新京 寬城子 塾長 李鴻周

古場 林岡郡桃源面事務所 職員一同

淸道 產業技手 安琪澤
淸道驛前 大東商會 主 李寶柱

扶餘 忠南鴻山里 鴻山醫院 院長 鄭鎭國
扶餘郡九龍面 朴成鎬
南扶餘邑內 金大植
忠南扶餘邑內 南宮精米所 主 南宮□

江景 扶餘郡草村面長 李輔吉
扶餘郡石城面縣內里 李載惠

安城 京釜線黃澗驛中牟 中牟和信連鎖店 劉日成
慶北線玉山驛前 高麗合名會社玉川出張所 重信一

宜寧 宜寧邑內 金鎭壽
龍德面竹田里 李泰義
龍德面□□里 李明厚
宜寧邑內 洋服洋靴 富泰屋
宜寧面事務所一同

新泰仁 泰仁面入仙里 李喜灝

南陽 咸北南陽中央通 日本オコロムビア 昌盛堂時計店 支店

長城 廣□□

朝鮮生命保險 湖南支社
光州府光山町八八ノ二
支社長 申直均
電話三〇番

現行商法改正案 (4)
그全條文內容

第五十八條 會社가 正當한 事由업시 그成立後 一年內에開業치안코 又는 一年以上營業을 休止한때에는 裁判所는利害關係人又는 檢事의 請求에依하야 又는 職權으로써 其解散을 命함을 得함

會社의 業務를 執行하는社員 取締役 又는 監査役이 法令又는 公의秩序 或은 善良한風俗에 反하는行爲를 爲한境遇에 會社의 存立을 許치못할 事由잇는時 亦前項과同함

前二項의 境遇에 裁判所는 解散의 命令前이라도 利害關係人 又는 檢事의 請求에依하야 又는 職權으로써 管理人의選任 其他會社財産의 保全에 必要한處分을 함을 得함

第五十九條 利害關係人이 前條 第一項 又는 第二項의 請求를한때에는 會社의 請求에依하야 相當한 擔保를 提供함을 要함

第六十條 利害關係人의한 第五十八條 第一項 又는 第二項의 請求가 却下된 境遇에其請求者에 惡意 又는 重大한 過失이잇는때는 會社에對하야連帶하야 損害賠償의 責에任함

第六十一條 本編의 規定에依하야 登記할事項으로 官廳의許可를要하는것은 其許可書의到達한時로부터 登記의期間을起算함

第二章 合名會社

第一節 設立

第六十二條 合名會社를 設立함에는 定款을作함을 要함

第六十三條 合名會社의 定款에는 左의事項을記載하야 各社員이 署名함을 要함

一、目的
二、商號
三、社員의氏名及住所
四、本店及支店의所在地
五、社員의出資의目的及其價格又는評價의標準

第六十四條 合名會社의設立의登記에잇서서는左의 事項을 登記함을 要함

一、前條第一號乃至第三號에揭한事項
二、本店及支店
三、存立時期又는 解散의 事由를 定한때에는 그時期又는事由
四、社員의 出資의目的과財産을目的으로하는 出資에對해서는 其價格及履行을 한 部分
五、社員으로서 會社를 代表치안는者 잇는때에는 會社를 代表할者의 氏名
六、數人의 社員이 共同又는社員이 支配人과 共同하야 會社를 代表할것을 定한때에는 그規定

會社는 設立의 登記를 한後 二週間內에 支店의 所在地에서 前項에 揭한事項을 登記함을 要함

第六十五條 會社의 成立後 支店을 設한時에도 本店의 所在地에서는 二週間內에 그支店을 設한것을 登記하고 그支店의 所在地에서는 三週間內에 前條第一項에 揭한事項을 登記하고 他支店의 所在地에서는 同期間內에 그支店을 設한것을 登記함을 要함

本店又는支店의 所在地를 管轄하는 登記所의 管轄區域內에서 새로 支店을 設한時에는 그支店을 設한것을 登記함으로써 足함

第六十六條 會社가 그本店을 移轉한時에는 舊所在地에서는 二週間內에 移轉의 登記를 하고 新所在地에서는 三週間內에 第六十四條第一項에 揭한 事項을 登記하고 그支店을 移轉한때에는 舊所在地에서는 三週間內에 移轉의 登記를 하고 新所在地에서는 四週間內에 第六十四條第一項에 揭한事項을 登記함을 要함

同一의 登記所의 管轄區域內에서 本店又는 支店을 移轉한때에는 그移轉의 登記를 함으로써 足함

第六十七條 第六十四條第一項에 揭한 事項中에 變更을 生한때에는 本店의 所在地에서는 二週間, 支店의 所在地에서는 三週間內에 變更의 登記를 함을 要함

第二節 會社의 內部關係

第六十八條 會社의 內部關係에 對하야는 定款又는 本法에 別段의 定함이 업는때에는 組合에 關한 民法의 規定을 適用함

第六十九條 社員이 債權으로써 出資의 目的으로한 境遇에 잇서서 債務者가 辨濟期에 辨濟를 하지안는때에는 社員은 그辨濟의 責에 任함 이境遇에 잇서서는 그利息을 支拂할外에 損害賠償을 함을 要함

第七十條 各社員은 定款에 別段의 定함이 업는때에는 會社의 業務를 執行할 權利를 有하고 義務를 負함

第七十一條 支配人의 選任及解任은 特히 業務執行社員을 定한때라도 社員의 過半數로써 이를 決함

第七十二條 定款의 變更其他會社의 目的의 範圍內에 잇지안는 行爲를 함에는 總社員의 同意잇슴을 要함

―(續)―

京城內市場統制 準備工作의進行
中央物産이丸京市場買收計畫
中央都賣市場目標로

京城府內 都賣市場은 現在南大門市場, 東大門市場, 中央物産市場, 京城水産市場, 丸京市場等五個所인데 此等市場의 統制가不充分한 關係로 同一한地帶에잇서서도 市勢의 差異가 顯著할뿐아니라 配給上 不便이 적지안흠으로 京城府에서는 일즉부터 産業調査會로하여금 그實況을 調査케하여오든터인데 이것은 五都賣市場을 한덩어리로하야 大京城의 中央都賣市場을 結成하라는 前提로 하는것이라고한다 더욱 右五市場中 京城水産은 昭和十一年三月 中央物産及丸京市場은 同十三年三月이 許可期間이 滿了期임으로 京城府當局은 이것을 市場統制問題 實現化에 對한 好機會로삼는 傾向도 잇다 그와가티 市場統制가 問題되고잇는 이때 中央物産에서는 將來 中央市場問題가 擡頭될境遇의 準備工作으로서 旭町에잇는丸京市場(資本金十萬圓)을 買收하라고 計畫中이든바 最近그具體案의 細目에對하야 協議進行中인데 來月初까지는 調印이될모양이며 中央物産의 丸京市場買收後의 同市場經營方法並 收業等에對하야는 講究中이라고한다

"小賣價標準機關" 公設市場充實企圖

그러고 京城府에서는 大京城實現에臨하야 日用品의 配給機關인 日用品市場도 充實을期하고저 前者와同期에 그實況을調査中이라는데 現在花園町、龍山、西大門、麻布等四個所의 公設市場을 嚴重히하야 小賣物價調節의 標準機關으로하는同時에配給網이 不充分한 地帶에는今後 增設할 計畫이라고하며 現在市內各處에 配置되어잇는 九個所의 私設日用品市場에對한 指導監督도 道와協力하야 今後大京城의 配給網의完璧을期할 計畫이라고한다

物價가續騰! 最近都賣指數

▲東京 一時 低迷이던 東京의 物價는 昨年下半期以來 米穀小麥繭等의 農産物의 値上에 發端하야 騰勢에轉換하얏는데 更히 九月에는 伊에紛糾化에因한 國際重工業品의 昂騰과米國財界의 顯著한 好調로 拍車를加한結果 都賣物價, 小賣物價共히 近年稀有의 騰勢를示키에 至하얏다。이에 昭和七年一月以來의 日銀調査都賣物價와 小賣物價의 推移를示하면

	都賣物價	小賣物價
七年一月	一五九·五	一三六·八
八年一月	一八五·〇	一四八·一
九年一月	一七五·五	一四七·三
十年一月	一八一·一	一五〇·一
同 三月	一八三·五	一四九·九
同 五月	一八二·四	一四九·五
同 七月	一八〇·二	一四九·五
同 八月	一八二·九	一五一·九
同 九月	一八八·九	一五四·四
同 十月	一九四·	一五四·一
同 十一月	一九三·六	一五五·六
同 十二月	一九一·九	一五五·六
十一年一月	―	一五六·八

即昨年十月의 都賣物價는 一九四、〇으로 昭和五年二月以來의 最高價이엇스며 小賣物價도 一月에 一五六、八로五年五月에다음가는 高位를示키에 至하얏다 都賣物價는 十月에 高價를作한 以來幾分漸落을 보이엇스나 이로써 物價가下落에 轉하얏다고 보기는 尙早이오 이는單純한一時的反動에 不過하다。即 米國財界는 今年에 入한後 去益好調를 示하고 또 日本의軍縮會議 脫退에 依하야 繼續發表된 世界的 軍備擴張 計畫 更히 通貨膨脹의 傾向等物價昂騰을 決定할 要因이 모다 繼續되고 解消되지안흠으로 物價의 騰勢는 繼續될것으로 보아 大差업다 한다。

▲京城 도리키어 京城의 物價를 보면 朝鮮銀行調査 京城都賣物價

	都賣物價
七年一月	一四二、五六
八年一月	一六四、四三
九年一月	一五六、九九
十年一月	一七四、九三
同 三月	一七九、一二
同 五月	一七八、八二
同 七月	一七六、七八
同 八月	一八〇、一五
同 九月	一八二、一二
同 十月	一八四、八二

騰을 告하고 十一月 少弱이엇스나 十二月은 다시 騰勢로 轉한바 日本內地의 事情이 如上이므로 朝鮮의 物價高도 繼續될것으로 보인다。

議會解散後의 財界影響이稀薄
各方面見解綜合點

【東京電話同盟】議會解散이 財界에주는影響에 對한財界各方面의 見解는 다음과갓다고한다

近年의 政府는 往年과가튼 政黨中心主義에서 떠나게될것임으로 總選擧의結果 어떠한 內閣이생기든지 現在의 政府政策을 激變케함은 거의생각할수업고 財政政策으로도 目下의 赤字財政을 一氣로 健全化케하라고 大規模의增稅를 斷行함은 가령 政黨中心의 內閣이 成立할境遇라도 全然不可能할일이다 一面으로는 放慢한 公債政策도 到底히 金融界의 容許가될수업슴으로 現在財界一般이 絶大支援을 하고잇는 高橋財政그것의延長은 必至일것이다 要컨대 解散은 豫想되어든 바임으로 財界에 미치는影響이 매우 稀薄하다고。

"硫安暴騰의對策"
道府縣農會長會議에서 政府에急講究를要望

【東京電話電通】帝國農會에서는 廿一日 道府縣農會長會議를 열고 ▲硫安暴騰應急對策의件에對하야 協議한結果 다음과가튼決議를 하고 農林當局에要望키로되엇다

▲硫安暴騰應急對策에關한要望=硫安의價格은 昨年以來 顯著히暴騰을 持續하고 特히最近에는 叺當百三十圓에 達하라는 價格을나타내여 依然農村窮乏의 이때 만약 압흐로의 稻作施肥期에 이처럼 肥料價格이 昂騰함은 農家經濟를 破滅케 하는것이될 念慮가잇다 그래서 政府는이와가티 不當히暴騰한 硫安의價格에對하야 有效適切한 機宜의 處置로써 그것을低下케하도록 最善의힘을 다하기를要望함

同十一月 一八二、一七
同十二月 一八三、〇八

滿洲朝銀券收縮 實際에別無減少

滿洲國內地의 朝鮮銀券撤收狀況은 普通貸出及 附屬地의 特産貸出은 國幣로써 하지만 關東及 駐滿海軍에서는 아즉 朝銀券으로써 支拂하는等 金建에依한 經理를 行하고잇스므로 朝鮮券의 收縮은 顯著치안타 特히 特産貸出은 出廻가 遲延된 關係上 貸出은 아즉 적고 朝銀券收縮은 別로 안나타난다고 한다

上旬鐵道荷動 鐵道局綜

一月上旬의 貨物荷動狀況은 依然好調를呈하야 上旬合計는 十八萬四千六百五十七噸으로 昨年同期에比하야 二萬六千六百六十七噸의增加이엇다

銀行會社總會
東銀頭取重任 三分配當案可決

東一銀行은 廿二日午前十時卅五分부터 同行會議室에서 定期株主總會를 열엇는데 頭取閔大植氏가 喪中으로出席치못하야 專務成樂憲氏가 議長으로되여가지고 利益金處分(年三分配當)을可決하고 다음에 任期滿了의閔大植、尹皡炳兩氏 取締役은 再選重任으로可決한뒤 同十時五十分에散會하엿다

▲商銀三分配當

朝鮮商業銀行은 廿二日午前十一時十分부터 同行에서 定期總會를 열고 旣報한三分 利益配當案을 可決 故取締役韓時殷氏에對한弔慰金은 重役會一任으로決定하엿다

▲日本曹達一割二分配當=【東京電話電通】日本曹達會社에서는 廿一日 決算重役會를 열고 當期利益金處分案(配當年一割二分)을 決定하엿다고

經濟界消息

○水産會長中谷氏推薦=朝鮮水産會會長後任選任은 一日同定期總會에서 選擧한結果 現水産會評議員、慶北中谷竹三郞氏가 推薦되엇다고

工業鑛業銀行創設과 普銀의強化問題
産業調査會에서協議?

十八銀行支店의 殖銀讓渡는 日本內地文店銀行撤退의 先驅로 觀測되어잇는바 다시 朝鮮의銀行制度調整에 關한問題가 産業調査會에서 協議케될모양이라고한다 朝鮮의 銀行制度調整上 남어잇는問題는 工業、鑛業의金融機關創始와 普通銀行의機能強化로 이에對하야는 朝銀、殖銀의二大特殊銀行中心으로 合理化하야 殖銀을 母胎로 貯蓄銀行이생긴것과 가티殖銀、朝銀을 母胎로 工業、鑛業金融機關을 創設하고 또 兩特殊銀行의普通銀行業務를 廢止하야 旣設群少普通銀行의機能을 強化함에 잇슴으로이것이 調査會에는 問題가 될것이라고한다

通貨安定問題
⑨ 試驗期가尙必要

그러나 政治的不安 其他를 全然 떠나서 생각하드래도 價値의 終局尺度로 金을 다시 採用함은 現在에 早急히 바랄수 업고 金은 매우 分配가 不均衡으로 되어잇다 이것을 바로 잡음에는 亦是金過剩國으로부터 他國에 對한 貸付金의 增加와 金過剩國이 달은나라로부터 商品을 購入함으로써 漸次 改善하여갈수밧게 업다 米佛의 金保有가 巨大한때문에 金의 大規模再分配가 되기까지는 結局 顯著한 金價格의 騰貴即商品과 金과의 相對的 價値에 잇서서 조치못한 變化가 생기지 안흘가 생각하는것도 不自然한것이 아니다

×

各方面에 여러가지의 不安이 잇는 現在의世界가 國際通貨機構를 再建하기 까지는 아즉도 相當한 試驗期를 지내야만 될것으로 생각한다。英國의 態度로는 헨더손氏의 말과가티 現狀대로 行動의 自由를 保持함에 나는 贊成하고 英國의 將來行動은 金불럭 특히 佛國이 어떠케 現在의 通貨問題를 解決할것인가함에 달렷다 만약 佛國이 何等의 變更을 안할수업다는 見解를 갓게되면 英國이 한일과 가티 金輸出을 禁止하야 어느期間 金을 떠나서 일자 或은 白耳義와 가티곳 新平價로 金에다가 매여노케될까 하는點等이다 佛國이 後者의 方法을 取하면 佛國과 米國이 金으로 連結하고 그 다음에 獨逸、伊太利、日本의 態度가 順次로 定케될것이며 獨逸은 金불럭의 通貨制度變更을 機로 이亦是平價切下를 할는지 모른다 그럼으로 問題는 이境遇 英國과 스타링 地域은 金本位國과 一定한平價로 通貨를 매여놀것인가 或은 佛國이할수업시 金輸出禁止를 하야 한때 英國이한것과가티 當分間 管理通貨를 하게될는지 모른다 나는 어느境遇든지 米國의國內情勢가 相當한安定을 繼續할것으로 假定하면 英國이 取할手段은 弗에對하야 스타링動搖를 될수잇는대로 狹少한限界에 끄치도록 힘쓰는同時에 現在의 對外有價證券投資와 對外貸付에 對한制限을 漸次 緩和하야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終)―

株式 伸惱로 更弛
商況 (廿二日)

前場閑散 雙方警戒不振으로 卽昨後引에比하야 東新五十錢低인 百五十八圓六十錢 大新不變인 九十一圓七十錢 日産不變인 七十二圓六十錢 鐘新七十錢高인 百四十九圓三十錢 朝新十錢高인三十圓十錢 日魯五十九圓七十錢에各大引되고 日産新二十一圓六十錢 拓新十六圓八十錢이잇섯다

後場更弛 後場은 東新百五十七圓九十錢大新九十一圓二十錢

買氣不續伸惱

日産七十二圓丁 鐘新百四十八圓八十錢 朝新三十圓十錢에 更落後突込賣도 警戒하야下落稍大引이고 鐘新은 議勝하야 百五十圓丁이잇섯고 百四十九圓三十錢大引 議會解散으로 惡材出盡이라보아 昨日牝內高를 演하야 東京短期東新百五十八圓八十錢 當地百五十九圓十錢에까지 反撥되엇스나 今前場은 買物不繼이오 閑散揉合으로 細刻일뿐이엇다。

東京短期東新 取組四十萬割

四十五萬株로까지 大膨脹되어 大取組整理를 强行하던 東京短期東新은 新春高期待가 畢竟水泡에歸하고 解來落潮가 繼續되어 投物과 顯顯한 解合等으로 取組漸減이더니 再昨日議會解散直面의 嫌氣暴落으로 더욱整理가되엇는지 今日入電에 依하면 賣三十五店 買六十三店의 依然大下長이나 問題의 四十萬株臺를割로 激減을示하얏다。

目標玉投退待 尙今後不安視

價幅으로 二十圓餘의 棒下이오 取組高로도 東京短期東新은 四十萬株高가 깨어젓스나 惡材料一巡과 相俟하야 底入觀이잇기는하다

▲東京에잇서는 吉田等이 買方重力

▲大阪에잇서는 山口、大田等이 買下體를取하야 軟派의 目標玉이 投退지안흠으로 이것이 投退지안엇드래도 市勢는 完全히 好轉되엇는지 疑問이잇다。目前反撥이 繼續되면 買方이 處分키보다 軟派가 再次 賣落할好機가 되기쉬우마큼 雜株의 强底가 도리어 東新의 禍根이라觀測도 업지안흔 모양이다 軟派로서는 賣職以來 處地가 조케 되어잇슴으로 二層樂觀키 쉬웁게 되엇다。事實이며 腕力으로라도 買方主力의 投退를 어듸까지던지 目標로 突込實에 出할것이 아닌가? 財界樂觀的 大勢를 無視치 안는다드래도 東新에잇서는 當初 順序로봄이 常識인것갓다。

實物株前場取引

▲日滿아르미三六〇▲滿洲化學三八九〇▲東滿鉛二八〇〇▲東洋拓殖三五〇〇▲日滿鉛二九〇〇▲石川島新二六〇▲朝鮮貯蓄銀行[illegible]▲日蕃新[illegible]▲滿洲東亞二六(取引高一八〇枚)

東京國債市場

【東京電話】內債는 保合이나마 米債가 各各四十錢高로 一齊高를 示하얏다

期米 低迷이나 底堅

前場低迷 昨後場阪地 三十一圓五十三錢止와 共히 二十九圓五十七錢에 據을止한 當市場은 今朝에入하야 日本內地米實收 第二次發表 十九萬二千餘石의 增收를 接하고 阪地三十一圓四十一錢인 十二丁反落과 相俟하야 當限은 二十九圓〇一錢인 十八丁低로 中限은 二十九圓二十八錢인 十二丁低로 先限은 二十九圓四十錢인 十七丁低로 場을始한後 阪地稍軟調로 五十 三十八錢으로 結局四十五錢에場을止하엿다

後場底堅 後場은 二十九圓四十一錢에 三丁低로 始하고 結場後 三節二十九錢으로 揚하고 三節無賣買이엇스나 阪地引際高로五節四十四錢에 底堅이고 四十四錢에 止揚하다。

實收意外增加
豫想과의正反對

日本內地米實收高는 第一次發表의 北海道外十六地方의 分이四萬餘石 增收第二次發表의 秋田縣外十七地方의分이 十九萬二千餘石 合計二十三萬二千餘石의 增收로 發表前 一百萬石減收豫想과는 正反對의 現象을 示한다 今夕에 發表될 第三次의分이如何한 數字를示할지는 몰으나 大體二、三十萬石의 增收를 示할 모양이다 그런데 市勢는 벌서 阪地 七十丁當地 約七十丁의反落으로 增收의 行勢를 一巡하엿다고도 할수잇스나 그러나今後政府의大量買上을 行하기外에는 容易 趨勢의 高價를 上廻하지못할것갓다 그럼으로 新春의天井으로 보지안흘수업스며 從하야 찰아리 모도리앱의 方針을 取하는것이 良策이아닐가한 商談도 濃厚하며 一方으로는 今回에發表된實收高가 比較的樂觀이라할수잇스나 그러나 大體二個年凶作인만큼 農家의 賣急物이現出하기外에는 深入落도 期待키難하다는 强氣說도 잇다 果如何?

政府의政策과 農家態度一考

百萬石의 減收로豫想하든 日本內地米實收高는 正反對로 幾十萬石의 增收로 發表되고 相俟하야 市勢는 數段瓦落을 告함에 至하엿다 그런데 實收發表完了後의 大勢가如何히 展開될것을 一考하면 農家는 依然買惜方針을 取하여왓스나 大減收로豫期하엿든 實收가 反히 增加됨에 딸아 絶對強硬하든 그態度가多少 緩和되엇다 할수잇슴으로 春暖期의到來와 相竢하야 一時賣急을 하지안흘가하며 從하야實勢 威壓의 市勢를 演出하는때는 政府는 問題의 買替남어지의 買上과 季節的買上을 實施하기도 容易할것이다 그럼으로 一軟一强의 兩材가 얼키어잇는만큼春間의 從來市勢를 繼續하다가 農繁期에 入하야 天氣의 如何를 暑期에 비로소 大勢演出의 序幕이 되지안흘가한다

市場六感

株 問題의 東京短期東新大取組는 畢竟四十萬株高가 깨어젓다 ▲갑스로 二十圓餘棒下이오 惡材料까지 一巡되엇스니 사보자는 생각이나기도 하겟지만 ▲三十五對六十三으로大下長은 訂正되지안코 東西買方主力은 依然踏居하니 이것이그대로 버티게될가? ▲目標玉投出을 期코 軟派의 突込이 十常八九일듯 ▲그뿐이냐 財界樂觀人氣가 市勢上에 積極的으로 作用함에는 相當한時日을 要하여야 할판이니 좀처럼 東新의 好轉은難期? ▲큰市勢를 바라고 四十餘圓을 十圓押도 업시 一氣突進하얏던것이 인제야 二十圓押이잇섯스나 더떠러지지 안흐란드래도 重病치른 患者가 갑작스럽게 恢復될수는업겟지? ▲鐘新은 二十三日總會를압두고 拂込말이나 나올가하인지 百四十九圓臺로뛰다 또失望이나 안될는지?

米 第二次實收發表는 十九萬二千餘石減收로 一次分을合하야 二十三萬二千餘石이나 增加 ▲第三次의分이마치 何如할지는몰으나 大體二十萬石以上의 增收는 明若觀火 ▲百萬石減收로 豫想하든一般은 大驚失色하야 損退하기에汲汲 ▲果然買方의 損退物이 一巡하엿는지 아즉도 남아잇는지는 몰으나 市勢는 當分無邊에서 一張一弛로 終始하지안흘가한다 ▲言必稱減收를 主張하든 市中硬派도 狼狽에歸하엿거니와 農家의 賣惜方針도 多少解弛될것을可期 ▲萬一農家의 賣急物이 現出하는때는 賣勢의威壓이 엇지아니하야 又復一段瓦落을 告하기도 容易할일 ▲그러나 政府의 買上問題가걸처잇는만큼 深入落도 하期待키難할모양 ▲何如間天井은旣히演出한것으로볼수잇고 又는此邊의當分保合을可期 ▲이와가티 春間의保合을繼續하다가 農繁期에入하야 大勢가左右될 모양?

堂島前場情報

【大阪電話】買上續行의 時期如何를 注目하고 根本的으로 이實收數字로는 依然滯貨이 稍細하며 特히 古米滯이 甚하야 東北、北陸에서는 이미 古米撤下要望의소리가잇스며 民間所持의 거의全部는 清算側에서 商人의所持와 相異하야 最高米價過濟을 時期問題로보아 賣濟務함으로 大勢는 押目買氣濃厚이다。

賣方=西側 神戶側 朝鮮側 中東側別派
買方=西山 馬越 神戶側別派 海掘

各地正米

京城續落 定期低로 賣物이 影姿를 潛하고 取引은全혀 停頓狀態로 十錢低唱인 ㊂三等二十八圓九十錢 四等二十八圓六十錢 一等白米三十一圓五十錢

仁川軟調 定期의 續落으로 買氣萎縮하야 市況은 更히 十錢低의 軟調를 呈하엿는데 産地는 依然 賣物을 出치안어다 丸仁三等 二十八圓九十錢 四等二十八圓六十錢 一等白米 三十二圓〇五錢

釜山不味 市場出廻는 三千叺 淸算의低迷로 人氣消低不敗이오 更히 五錢續落이나 産地는舊態依然히 强硬取引高 千四百五十四叺 角ㄱ三等二十九圓丁 四等二十八圓六十五錢 一等白米三十二圓三十六錢

大邱下支 定期低를 繼하야 人氣不振이나 産地强硬으로 賣物皆無의 場面을 下支인 角ㄱ三等二十八圓五十錢 四等二十八[illegible]

群山軟調 [illegible] 一等白米十一圓七十錢

木浦低迷 實收高에對한 期待背馳로 新規買付는 全혀不振 [illegible]

朝取期米取配內容

[illegible]

今日財界 (廿二日)

◆米 (單位錢)
仁川期米 先限 [illegible]
大阪期米 先限 [illegible]
㊂三等米 一石 [illegible]
正租(仁川)二等 一斗價 三等 [illegible]
◆市中金融 一年賣 一年買 [illegible]
◆株 (單位錢) 朝新 東新 日魯 [illegible]
◆商品 大阪綿絲 大阪棉花 大阪人絹 大阪砂糖 ゴム現 [illegible]

金融 廿二日

◆海外經濟◆ [illegible]
◆朝鮮銀行券◆ [illegible]
◆日本銀行券◆ [illegible]
◆京城手形交換高◆ [illegible]
◆東京金利◆ [illegible]
◆大阪金利◆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金買入價◆ [illegible]

米穀 廿二日

◆京城正米◆ [illegible]
◆仁川正米大豆◆ [illegible]
◆京城雜穀◆ [illegible]

商品 廿二日

◆京城綿絲布市勢◆ [illegible]
◆京城綿布◆ [illegible]
◆日本麥粉市勢◆ [illegible]
◆豆油沖價◆ [illegible]
◆滿洲商況◆ [illegible]
◆大連特産市勢◆ [illegible]
◆綿粕沖價◆ [illegible]

株式 廿二日

◆朝取短期◆ [illegible]
◆朝取短期賣買高◆ 合計 [illegible] 累計 [illegible]
◆東京現株◆ [illegible]
◆東京短期◆ [illegible]
◆東京短期取組◆ [illegible]
◆大阪短期◆ [illegible]
◆大阪短期取組◆ [illegible]
◆大阪短期◆ [illegible]

期米 廿二日

◆朝取期米◆ [illegible]
◆朝取期米賣買高◆ 當 中 先 [illegible] 合計 本期總計 [illegible]
◆朝鮮內各地期米◆ 前場大邱 釜山 群山 木浦 鎭南浦 [illegible]
◆大阪期米◆ [illegible]
◆大阪正米標準價◆ 引後氣配 [illegible]
◆大阪期米取組◆ [illegible]
◆大阪市中在米高◆ 日本內地米 玄米 白米 朝鮮 玄米 白米 台灣 [illegible]
◆東京期米◆ [illegible]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商品 廿二日

◆大阪綿絲◆ [illegible]
◆各地正租市勢◆(單位錢) 地名 種類 一等 二等 三等 等外 [illegible]
◆大阪棉花◆ [illegible]
◆各地人絹◆ [illegible]
◆橫濱生絲◆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爪哇砂糖◆ [illegible]
◆大阪ゴム◆ [illegible]

金.銀.白金
地方注文代金引換販賣 送料先金要
京城德力
京城府明治町
電話本局3939 振替京城334

謹謝
賣買最多賞受領
壹等
朝鮮取引所米豆取引員
盈康益夏商店
仁川府海岸町二丁目
電話 長 一〇二番 長 七六一番 [illegible]
電略 ジンセンカネマ [illegible]